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6월 9일)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연주암·선본사 직영해제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돼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서 만장일치 가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가 직영사찰인 연주암과 선본사의 특별분담사찰 전환을 결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사찰의 분담금을 10% 감액함에 따라 조정된 중앙종무기관의 올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 23~24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 중앙종무기관 결산 감사를 비롯해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성과는 연주암과 선본사의 특별분담사찰 전환이다. '연주암 및 선본사의 직영해제 및 특별분담사찰 지정 동의의 건'을 상정한 중앙종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제안설명을 통해 "선본사는 1994년 분규에 의한 사고사찰로 지정되면서 직영사찰로 전환됐다. 그 이후 선본사는 종단에 많은 기여를 했고, 지역포교에 어려움이 있다는 해당 교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해당 교구는 선본사가 특별분담사찰로 전환돼도 기존 분담금을 그대로 납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연주암에 대해서도 "2016년 조계종 중앙종회가 각 교구별로 직영사찰을 1곳씩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당시 총무원장스님이 우선적으로 연주암을 직영사찰로 지정한 바 있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이제는 교구중심제와 분권화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서 총무원이 직접 관장하기보다는 해당교구에 역할을 줘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주암을 다시 특별분담 사찰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일선 사찰을 돕기 위해 분담금 10% 감면을 골자로 편성한 것으로 295억 8341만원에서 25억 9630여만원 감액된 269억 8702만2000원으로 확정됐다.

쟁점 법안으로 평가됐던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과 비구니 명사 추천 관련 법계법 개정안은 각각 부결·철회됐다.

중앙종회는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포교원, 교육원 교역직 종무원을 겸직하도록 완화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 31표·반대 24표·무효 1표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 7명이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은 비구니 명사 추대 시 전국비구니대표단체(명사법계추대위원회) 추천을 받아 재적 교구본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공식적 종법기구가 아닌 전국비구니회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결국 대표발의자인 정운 스님(15교구)이 "내용을 보완해 11월 정기회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철회했다.

중앙종회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구체화하는 법계법 개정안을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은퇴출가자는 창건주 권리를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문화재구역 입장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종단 주요 인사안들도 통과됐다. 중앙종회는 원로의원에 도후 스님과 지명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도후 스님과 지명 스님은 향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출된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과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가결했다.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대종사 21명, 명사 2명이 법계를 품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심호계위원·법규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감사와 승가학원 이사의 복수 추천 동의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중앙종회는 최근 발생한 남양주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중앙종회의원)의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추진키로 하고 묘적사 수행환경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각성 스님이 발의한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 논의의 건'에 대해서 의석수 배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특위를 구성키로 결의하고 관련 내용을 차기 회의서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2면

종무기관 2020년 추가경정 가결
원로의원 도후·지명 스님 추천
겸직금지 완화 종헌 개정안 부결
명사 추대 법계법 개정안 철회해
묘적사 수행환경침해조사위 구성



조계종은 7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영국서 돌아온 '송광사 치성광여래도'에 대한 환수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환수된 '치성광여래도'에 합장의 예를 하고 있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해외 유출 송광사 '치성광여래도' 환지본처

조계종, 7월23일 환수고불식
한국전쟁 무렵 영국에 유출
송광사로 이운해 봉안 예정
종단·재단·송광사 협력 덕



영국서 환수된 '송광사 치성광여래도'. 19세기 후반 전라도를 중심으로 유행한 형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등 혼란기에 해외 유출돼 영국 등지를 떠돌던 조계총림 송광사의 '치성광여래도'가 환지본처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7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영국에서 돌아온 '송광사 치성광여래도'에 대한 환수고불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오심)와 송광사(주지 자공),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소장자와 협의를 통해 6월 28일 '치성광여래도' 환수에 성공했으며, 이날 환수고불식에 이어 원래 자리인 송광사로 이운해 봉안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시련과 수난을 겪으면서 민족의 자부심과 정신문화가 깃든 소중한 문화재가 상품화되고 왜곡되어 왔다"며 "종단이 문화재 환수에 큰 원력을 세운 것은 국민의 자부심과 정신문화가 깃든 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결실을 맺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송광사 칠성도가 환수된 것은 성보 보존과 전승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원력과 우리 문화재 보존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맞닿아 이루어진 부처님의 가피"라며 "소중한 송광사 칠성도가 환지본처 할 수 있도록 힘쓴 많은 분들에 감사한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성보들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이번 환수에 대해 "종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최응천)의 긴밀한 협조와 봉안처인 송광사의 적극적인 노력 등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경매시장에 출품된 한국문화재 모니터링 중 '치성광여래도' 1점을 발견하고 종단에 이를 알렸다. 당시 불화는 화기(畵記) 앞부분에 기재된 제작 연도와 봉안 사찰명이 훼손된 상황이었지만, 종단 측이 불화의 화풍과 남아있는 화기를 분석해 송광사 산내암자인 청진암에 봉안되었던 불화였음을 확인했다.

종단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송광사 측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성보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국외로의 유출 시기와 이유는 특정할 수 없으나 한국전쟁 등 국내의 혼란기에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협력해 운문사 '칠성도', 봉은사 '시왕도', 범어사 '신중도'의 환수를 통해 구축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외 유출 성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환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지속적인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보다 효과적인 환수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원행 스님의 뜻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문화재환수재단과 성보소장기관 간의 협의를 강화하고 포괄적 기금을 조성해 문화재 환수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성보환수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종단 차원의 문화재 환수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비구니 참여 명문화’ 화두 던지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남긴 것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월 23일부터 5일 간의 회기로 개원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과 비구니 명사 추천 관련 법계법 개정안은 개원 전부터 쟁점 법안으로 꼽혔지만 종헌 개정안은 부결, 법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운 스님(15교구)이 스스로 철회하며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 7명이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은 비구니 명사는 전국비구니대표단체(명사법계추대위원회) 추천을 받아 재적교구본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법계법 개정안이 다룰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 법계에 대한 절차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비구니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원로 비구니 스님을 명사로 추대함에 있어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수렴 · 추천 없이 교구 추천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비구니계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교구본사와 상충하는 요소가 발생해왔다는 게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계법 개정안에 명시된 ‘전국비구니대표단체’를 의미하는 전국비구니회가 종법기구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됐고, 결국 대표발의했던 정운 스님이 “내용을 보완해 11월 정기회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철회했다. 대종사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명문화한 법계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철회 직후 정운 스님은 법계법 등 종법 안에 비구니 관련 조항을 명문화시켜 달라는 화두를 던졌다. 스님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대종사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명문화됐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 관련 기준 조항이 없다”면서 “전국비구니회 설립과 명사 추대 관련 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항변했다.

‘전국비구니대표단체’ 논란에
법계법 개정안 스스로 철회
“종법 內 비구니 조항 없어”
대종사 자격기준만 명시돼
이부승가 맞는 법 개정 필요

이어 “법계법 개정이 어렵다면 법계위원회 내에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하는 명사추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원로 비구니 스님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달라”라며 “종법에 비구니 조항이 없다는 것은 비구니를 차별하는 것이다. 이는 이부승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 법계법 내 비구니 관련 조항은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9인으로 구성되는 법계위원회에는 비구니가 참여할 수 없다. ‘총무원장 제청으로 종사 이상 비구 중에서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어서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7월 23~24일 열렸다. 사진은 삼귀의례와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전형방법과 기본자격요건에서 ‘비구니 법계 전형 또한 비구 전형에 준한다’, ‘비구니 법계 요건은 비구 법계에 준한다’고만 명시할 뿐이다.

정운 스님의 주장대로 애초 비구니 스님들이 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으니 비구니 스님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불합리함은 지난 2013년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놓고 불거진 논란에서도 잘 나타난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관련 종헌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당시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는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가 채택한 ‘호법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에도 담긴 내용이었으나 일부 비구 스님들이 율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구’를 ‘승려’로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

논의 과정에서 한 비구 의원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심사하면 더 많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비하 발언을 했고, 격분한 비구니 스님들이 전원 퇴장하고 회기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갔다.

법계법과 관련해 법제분과위원회와 일부 비구 스님들이 제안하는 해결방안은 전국비구니회의 ‘종법기구화’이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며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보다는 조계종 종헌 · 종법 내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종무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구니 스님들이 발의해 철회한 법계법 개정안은 ‘종법 내 비구니 참여 명문화’라는 화두를 던져줬다.

“존경받는 이사장으로 선학원 쇄신 이끌길”

선학원미래포럼 입장문 발표
신임 이사장에게 변화 요청
“자율성 지키며 종단과 화합”

재단법인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이 20대 이사장에 선출된 송운 스님에게 선학원 쇄신을 위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 · 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는 7월 21일 자민 스님 명의로 ‘선학원의 변화와 쇄신을 기대합니다-제20대 이사장 선출에 부쳐’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협의회는 “선학원이 처한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위중하고 안팎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 또한 결코 녹록치 않다”며 20대 이사장 송운 스님에게 선학원 변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송운 스님에게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과의 소통 그리고 조계종과의 갈등 해소를 선결 과제로 주문했다. 특히 소통을 위한 변화로 정관과 선학원 내부규정을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에게 공개하고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해 창건주 · 분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대중공의를 통해 재단 운영의 방향을 올바로 정립하고 무너진 수행풍토를 쇄신하여 승풍을 진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이사장 체제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온 조계종단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재단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국 분원이 안정되고 분원장과 이사회가 한마음이 될 때 비로소 선학원 재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송운 스님에게 남다른 기대감을 보이는 것은 스님이 석주 정일 스님의 상좌이기 때문이다. 불교개혁과 정화운동의 산증인인 석주 스님은 선학원 창설에 큰 기여를 한 남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선학원 제6대 이사장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스님들은 “종단 화합과 청정 수행가풍 확립이야말로 불교발전의 기본 토대라는 신념을 가지고 선학원 창립정신을 구현하고자 평생을 정진했던 어른”이라며 “송운 스님은 석주 스님의 뜻을 계승하고 선학원의 창립정신의 회복해 선학원을 바로 세울 책무가 있다. 이사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교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제2의 정화불사’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 스님들은 “선학원은 암울한 과거를 털고 일어나 찬란한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우리가 몸담은 선학원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송운 스님이 선학원의 변화를 이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임명

원행 스님 22일 임명장 수여… “해외교구 활성화를”

조계종 제3대 해외특별교구장에 정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전달 직후 원행 스님은 “어려운 시기지만 해외교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많은 해외 한국사찰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잘 화합시키고 단합시켜서 삼보정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우 스님은 “앞으로 해외교구가 활성화되는 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우 스님은 홍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8년 통도사에서 홍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9~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부장, 통도사 주지,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불교방송 이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 강남서 천막법당으로 도심포교를 시작해 구룡사를 일궈내고, 일산 여래사를 창건했다. 또한 군종교구장으로서 군불교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2일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신임 호법부장에 태원 스님

종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원행 스님, 임명장 수여해

조계종 신임 호법부장에 태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호법부장 태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원행 스님은 7월 22일 호법부장 서리로 태원 스님을 임명했고, 호법부장 임명동의안을 중앙종회에 발의했다. 이후 7월 23일 개원한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에 상정된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임명장 수여 직후 원행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호법 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종단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태원 스님은 “종단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3일 신임 호법부장 태원 스님(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신임 호법부장 태원 스님은 혜성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사미계)하였으며,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기획국장, 호계원 사무처장, 법장사 주지, 보문사 주지 및 제16대, 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안동 봉황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2급 승가고시 9월 25일 시행된다

고시위, 8월 31부터 접수

조계종이 올해 2급 승가고시를 9월25일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진행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2급 승가고시 일정을 공고하고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고시과목은 논술과 설법시연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논술 선택자는 사전제시된 6개 주제 중 출제된 2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설법시연 선택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설법 요약문을 700자 이내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설법대상 및 설법주제는 자유이며 고시 당일 설법평가위원과 응시대중 앞에서 10분간 설법을 시연하게 된다.

각 항목별 40점 이상, 총점 180점 이상시 합격한다.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스님은 재적 교구본사 종무소에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직할교구 재적승의 경우 교육원 교육부에 접수하면 된다. 02)2011-1809 송지희 기자

코로나 속 '기도회원제'…사찰경영 새 장르 열까

봉은사 등 연간 회원제도 도입

특별법회 · 할인혜택 등 눈길

신도소속감 증대, 재정도 일조

신도 소통, 신심 증장이 관건

- 봉은사, 13종기도 통합회원
- 구룡사, 5재일기도 연간 접수
- 화계사, 3종류 기도회원제 운영

밴드 · 문자로 관리, CMS 납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19로 인한 사찰 재정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연간 기도회원제'가 도입되고 있다. 유튜브 스트리밍 등 비대면 법회, 행사 중계와 함께 새로운 사찰경영의 축으로 자리잡을지 기대를 모은다.

6월 6일 서울 강남의 봉은사 미륵전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기도가 시작됐다. 3천불 회원제 특별기도가 그 것이다. 봉은사서 진행하는 3천불 회원제 특별기도는 1년 정기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찰에 오지 못하는 신도들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 봉은사의 회원제 기도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

봉은사 3천불 회원제 특별기도는 매월 CMS자동이체를 통해 월별, 연간결제를 하면 봉축기도, 출가열반기도, 안거기도부터 입춘, 칠석기도, 신중기도, 생전예수재 등 13가지의 기도에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기도다.

물론 기도를 하나로 묶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3천불 회원을 위한 별도의 혜택도 제공된다. 불교용품점인 서래원과 연회다원 용품의 10% 할인과 점심공양권 24장, 종일주차 6장 등도 제공된다. 또 주지 스님의 3천불 회원을 위한 별도의 법회도 진행된다. 사정이 있어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문자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심상태 봉은사 기획행사팀장은 "코로나 확산이 끝나고 사찰의 행사와 기도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던 중 기도 고정 동참자를 늘려보자는 의미에서 회원제 기도를 도입하게 됐다. 법왕루의 대형 스크린과 홈페이지에 동참자 명단을 띄우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피드백을 드리고 있다"며 "아직 초기이지만 여러 기도를 하시는 신도들에게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봉은사와 같이 도심 대형사찰의 회원제 도입은 신도들의 기도 참여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신도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별회원과 개별법회라는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같은 효과에 창원 구룡사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 지장, 관음, 산신재일의 5재일을 묶어 스님들이 축원하는 재일기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광명사도 인등기도부터 정초기도 등 사찰이 진행하는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는 회원제를 운영중이다. 특별회원이란 신도소속감 증대와 함께 고정보시라는 사찰 재정에의 도움은 덤이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헌금 제도가 있는 개신교계와 달리 불교계는 기도에 따른 들쑥날쑥한 재정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기도회원제를 포함해 정기보시문화는 역으로 기도에 편중된 사찰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부가적으로 사찰에 못 오는 분들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등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심의 대형사찰과 별개로 작은 사찰들은 회원제를 통해 고정수입이 마련되면 이른바 '신방' 같은 신도 맞춤형 가정법회 등 신행지원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효과에 5년 전부터 재일기도 회원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화계사의 경우 초하루기도에 이어 약사기도, 지장기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총 3가지의 기도회원제 운영할 예정이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 '매일 기도하고, 매주 법문 듣고, 매달 보시하는 신행문화'를 모토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신행활동에서 회원활동의 비중은 작지만 신도조직화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문제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과 같이 기도 회원제에 안주해서 오히려 신도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결국 회원제를 운영해도 신도들이 신심을 어떻게 내서 사찰로 나오고, 또 회원 신도들이 신심을 내서 신행활동을 하는지 돕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상주의 한 사찰에서 연간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부장 정인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신행문화가 퍼지는 가운데, 사찰신도로의 소속감을 높이고 재정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에도 사찰 운영에서 회원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신도소통 방법이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야간 로스쿨 준비

7월 23일 제330회 이사회서 논의

사회서 논의 중인 야간 로스쿨제도 도입에 앞서 동국대가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동국대는 7월 23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이사 정원 14명 중 1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제330회 이사회를 열고 서울캠퍼스 로스쿨 추진경과 보고 등을 진행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김승용 기획처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여당의 총선 공략 내용으로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야간 로스쿨의 유치를 위해 학내 준비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다. 로스쿨 구조조정과 야간 로스쿨 설립 필요성의 여론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로스쿨은 수도권 14곳과 비수도권 11곳 등 총 25곳으로 2000여 명이 수강 중이다. 종립학교로 구분해보면 개신교계는 2곳, 가톨릭계는 1곳, 원불교계가 1곳이지만 불교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동국대는 2006년과 2008년 로스쿨 설립을 추진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어 이번 야간 로스쿨 도입은 학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동국대는 국회 정각회 등과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8월과 9월 경 야간 로스쿨 준비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 디지털로 복원

국립문화재硏, 복원 결과 발표

중문 · 남회랑 증강현실로 되살려

실제 건축물 크기로 복원은 최초



황룡사 중문 및 남회랑 증강현실 복원안

몽고군의 침입으로 소실됐던 신라 최대 사찰 경주 황룡사가 디지털 기술로 되살아났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와 경주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사업의 하나로 지금은 터로만 남아있는 황룡사의 일부를 증강현실 디지털 기술로 복원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구현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를 하나하나 만들어 세부사항을 자세히 표현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로 복원한 것은 황룡사가 최초의 사례다. 특히 실제 건축물 크기로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처음이다.

황룡사는 553년(신라 진흥왕 14년) 창건을 시작한 이후 오랜 시간 변화를 거듭해 신라 최대의 사찰이 됐으나 1238년(고려 고종 25년)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어 현재는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라는 이름으로 터만 남았다. 9층의 목탑은 645년(신라 선덕여왕 14년)에 건립됐다.

이번에 디지털 복원을 마친 부분은 황룡사가 가장 크고 화려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통일신라시기의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이다. 황룡사의 가람배치는 크게 남문을 시작으로 북쪽으로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이 자리하고 있는데 중문 양쪽에 남회랑이 이어져있다. 복원한 중문의 크기는 가로 26.4m, 세로 12.6m이고 남회랑의 길이는 중문을 포함하여 272.5m이다.

이번 중문과 남회랑의 디지털 복원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1차로 완성한 제작물을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의 디지털 복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중문은 2층 규모의 우진각 지붕 형태와 1층 규모의 맞배지붕 형태 두 가지 모습으로 구현했다. 남회랑도 중문에 맞춰 2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과거의 일반적인 기존 디지털 복원물은 복원 건축물 앞에 사람이 있어도 건축물 뒤로 보이는 등 원근감이 무시됐지만, 이번 복원은 체험자와 건축물의 거리를 계산해 원근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게 특징이다. 이어 "2024년까지 황룡사 금당을, 추후에는 강당과 목탑도 디지털로 복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디지털 복원활용 사업의 새로운 유형을 꾸준히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묘공당 대행선사 업적 연구로 재조명

제 2회 묘공학술상 장학금 전달식

7월 19일 한마음선원 법당서 열려

청진 스님 등 5명 장학생으로 선발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이 불교학 연구자 지원을 위해 제정한 제 2회 묘공학술상 장학금 전달식이 7월 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5층 대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행선연구원측은 "지난해 3월 공모를 거쳐 선발된 최종 5명의 논문을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심사했다"며 "그 결과 이번 묘공학술상에는 아쉽게도 심사기준에 적합한 수상자를 찾지 못했다"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혜수 한마음선원 이사장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묘공학술상이 2회 밖에 안돼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직 많은 학자들이 참여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묘공이라는 큰스님 법호가 담긴 학술상에 맞게 훌륭한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모두 마음 내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혜솔 한마음선원 주지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평소 대행선사께서는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하고 모든 생명에 내재된 불성인 그 한마음 에너지를 활용해 본인들 일상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토록 가르치셨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저희 은사스님이 강조하신 한마음 도리가 여러분들 학문 세계에 조금이라도 응용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명을 선발한 장학생 모집에 올해는 독일 유학중인 운산 스님과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청진 스님, 서울대 철학과 박성일 씨, 동국대 미술사학과 진영아 씨, 동국대 불교학과 서민지 씨 등 최종 5명이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연간 5백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김주일 기자



제2회 묘공학술상 장학금 수여자들과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새로 지정된 국보 · 보물 '한자리'서 만난다

문화재청 · 국립중앙博 '신국보 · 보물展'

2017~19 지정 국보 · 보물 83건
국보 공개 전시로는 사상 최대
불교 전문 전시공간 별도 운영
부여 왕흥사지 사리구 등 공개
9월27일까지… 부대행사 '다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과 함께 '새 보물 납시었네 - 新국보보물전 2017~2019'를 9월 2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새롭게 지정된 국보와 보물 157건 중 이동이 어려운 문화재 등을 제외한 83건 196점을 공개하는 자리로, 국보와 보물 공개 전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전시는 △1부 '역사를 지키다' △2부 '예술을 펼치다' △3부 '염원을 담다'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3부 '염원을 담다'는 우리나라 국보 · 보물의 절반이 넘는 불교문화재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시를 위해 조계종 산하 9개 사찰이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00년 전 한반도에 도래한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왔으며,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귀의처였다. 이를 위해 선현들은 전국 곳곳에 사찰을 세우고 탑을 건립하며 불상과 불화를 봉안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불경을 간행하며 인쇄술의 발전도 이끌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불교문화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성보는 가장 오래된 사리장엄구인 국보 제27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로, 백제시대 불교 신앙과 정교한 공예기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불교 경전을 인쇄하기 위해 새긴 '묘법연화경 목판(보물 제1961호)', 〈선림보훈(보물 제700-2호, 충주박물관 소장)〉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보물 제875-3호〉 · 〈월인천강지곡 권상(국보 제320호)〉 등 불교 경전과 서적에서는 우리나라 불교 기록문화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보물 제2015호)', '남양주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 제2003호)' 등 불화와 불상도 전시된다.

1부 '역사를 지키다'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록 유산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전시에는 국보로 승격된 〈삼국사기(국보 제322-1호)〉 · 〈삼국유사(국보 제306-3호)〉를 비롯해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 등 다양한 역사기록물이 출품됐다.

2부 '예술을 펼치다'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미의식이 담긴 예술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고려 초기의 청자 제작을 보여주는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국보 제326호)', 고려 상형청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보물 제1932호)' 등 고려청자들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1부 전시장에는 검색화면용 탁자를 설치해 〈조선왕조실록〉을 흥미로운 주제별로 나누어 관람객이 직접 선택해서 검색해 볼 수 있게 했다. 2부에서는 46억 화소로 스캔한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를 30m 길이의 장대한 크기로 해당 문화재 전시공간에 펼친다.

3부에서는 이번 전시 공간에 함께 소개되지 못한 국보나 보물로 새롭게 지정된 사찰, 누정 등 건축문화재와 대형 괘불의 생생한 영상을 상영하여 전시의 입체감을 더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단위로 관람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

전시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관람객을 위해 매주 전시 장면과 주요 전시품 등을 담은 온라인 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하고, 문화재청이 선정한 주요 전시품 30건의 온라인 전시를 21일부터 다음 갤러리에서 열 예정이다.

국보와 보물의 궁금증을 풀어줄 온라인 강연회도 7월 29일, 8월 5일, 8월 13일 세 차례에 걸쳐 마련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튜브에서 생중계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국보와 보물을 국민에게 공개해 함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했다"면서 "지난 2017년에 처음 개최했던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신국보보물전 2014~2016' 이후 3년 만에 힘을 합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기획한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었네 – 新국보보물전 2017~2019'에서 공개되는 불교 성보문화재들. 사진 왼쪽부터 국보 제27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 보물 제1961호 묘법연화경 목판.

'사경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 20일 지정예고
첫 보유자엔 김경호 원장

불교 경전을 널리 전하기 위해 옮겨 적는 기술인 '사경(寫經)'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사경장(寫經匠)'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김경호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을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사경장'은 불경(佛經)을 쓰는 사경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사경은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경 유묵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은 통일신라 시대에(745~755년) 제작됐다.

사경은 고려 시대에 불교가 성행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특히, 충렬왕대에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寫經僧)을 파견하는 등 대외적으로 고려 사경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다.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의 첫 보유자로 인정된 김경호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이 사경을 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쇠퇴했으나, 일부 왕실과 사찰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됐다.

사경 제작은 크게 필사 · 변상도(變相圖) 제작 · 표지 장엄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금가루 발색 △아교 만들기 △종이의 표면 처리와 마름질 △잇기 △선긋기 △경 필사 △변상도 그리기 △표지 그리기 △금니 표면처리 등 10여 가지 공정을 거친다. 또한 경전의 오자 · 탈자가 없어야 하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장기간의 제작 시간이 필요하다.

사경은 서예 · 한문 · 불교 교리 · 회화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능이 요구된다. 사경이 수행과 예술이 접목된 종합예술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경장'의 첫 보유자가 된 김경호 원장은 높은 지난 40여 년간 사경 작업에 매달려온 장인이다. 1997년 조계종에서 개최한 '제1회 불교사경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2010년 '대한민국 전통사경기능전승자'로 선정됐다.

김 원장은 오랜 기간 문헌과 유물을 통해 사경의 재료, 형식,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기술로 승화시켰다. 또한 각종 교육 기관에서 사경 관련 강의를 하고 다년간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서적을 저술하는 등 사경 전승을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김경호 사경장은 "정부가 사경의 중요성을 인정해 준 것이어서 감사하다. 사경장 첫 보유자가 됐는데 책임이 크다. 한국 전통 사경의 보급 ·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사경 전문 장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며 전통사경의 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진흥원, 청년불자 양성에 2억원 지원

제1기 대원청년불자리더상 및
동아리상 시상…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청년불교 활성화와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인재 양성에 나섰다.

진흥원은 7월 20일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대원청년불자 리더상 · 동아리상 공모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제1기 수상자를 선정하고, 총 2억 4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진흥원이 1기 리더상 수상자 중 1명인 홍사훈 고려대 대학원생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제1기 리더상 · 동아리상은 올해 4월 공고 후 5월 15일까지 후보로 접수된 총 172건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불교동아리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리더상 59명, 동아리상 39곳을 최종 선정했다.

제1기 수상자에게는 상금 총 2억 45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진흥원은 같은날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 제1기 수상작을 선정하고, 증서를 전달했다.

이번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에서는 학술 부문 2편과 콘텐츠 부문 12편 등 총 14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에 통학 자전거 지원

7월 16일 전달식…저소득가정 대상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전달했다.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7월 16일 캄보디아 시엠립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동 통학용 자전거 기증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자전거는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통학용 자전거 지원 캠페인'을 통해 모연된 금액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에는 317명의 후원자가 참여했으며, 자전거가 없어 학교까지 한 시간 가량을 걸어 다녀야 했던 저소득 가정 학생 10명에게 자전거를 전달하는 토대가 됐다.

자전거를 지원받은 아동 10명은 캄보디아 시엠립주의 추천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선정됐다. 송지희 기자

통도사 삼소굴 인연담 '법향'으로 남다

경봉선사 38주기 추모다례서 〈삼소굴 법향〉 봉정

스님과 불자 50명 이야기담아
7월 17일 극락암서 봉정 진행
경봉장학회 장학금도 수여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경봉문도회는 7월 17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당 정석대종사 제38주기 추모다례 및 〈삼소굴 법향〉 봉정식' 를 봉행했다.



삼소굴 법향 책표지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은 근대를 대표하는 선사 경봉 스님(1892~1982)의 처소였다. 삼소굴에서 만나 나눈 담화는 곧 법담이 되고 인생을 결정하는 화두가 됐다. 이러한 법담을 담은 책이 봉정됐다.

경봉문도회(문장 원명)는 7월 17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당 정석 대종사 제38주기 추모다례 및 〈삼소굴 법향〉 봉정식' 를 봉행했다. 추모다례 및 〈삼소굴 법향〉 봉정식은 △불공 △추모다례 △〈삼소굴 법향〉 봉정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 △문도대표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봉문도회 문장 원명 스님, 원산 스님, 법산 스님, 문도회장 무애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이영채 일념장학회 이사장, 김광식 동국대 교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삼소굴 법향〉은 경봉 스님과의 인연담을 채록해 출간한 평전이다. 평전 〈삼소굴 법향〉은 경봉 스님과 인연이 깊었던 제방 스님, 통도사 문중 스님, 직계 제자 스님, 직계 손상좌 및 재가불자와의 인연담으로 엮여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함월사 조실 우룡 스님, 원로의원 인환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 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스님들과 김선근 한국불교학회 회장, 정병조 금강대 총장, 강수길 숙우회 대표 등 재가불자와의 인연 등 총 50명의 경험과 담화가 담겼다. 경봉 스님의 생생한 일상과 생활 속 법문에 영향을 받아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책은 경봉 스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연보 등이 담겨 객관성을 더했으며 총 5000권의 법공양으로 출간됐다.

경봉문도회 문장 원명 스님은 책 간행사를 통해 "저희 은사이신 경봉 스님의 가르침은 영축산 꼭대기에서 시작해, 자장동천을 거쳐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 온갖 갈등과 어리석음으로 목적을 잃은 이들에게 가뭄에 비를 기다리던 농부가 비를 만난 것처럼 감로수가 되어주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스님은 "여기에 실린 사진과 글을 통해 참 주인공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정식에서 경봉문도회는 책 출판을 위해 노력한 김광식 동국대 교수와 진웅산 백산출판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각 50만원 4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극락암 호국선원을 비롯해 보광선원, 서운암 무위선원에 수행지원금과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에 연구비 800만원을 전달해 총 4100만원을 지급했다.

문도를 대표해 원산 스님은 "문도회의 의지를 담아 늦게나마 삼소굴 평전을 출간하고 봉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큰스님의 열반 38주년을 기리기 위해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스님들께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편찬위원장 법산 스님(前 동국대 이사장)은 "스님의 법향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스님의 승기가 이 사회를 새롭게 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봉문도회는 매년 경봉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다례재를 봉행하고, 경봉 스님의 유지였던 인재불사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에도 경봉문도회는 2020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동국대 석·박사 및 제주대, 중앙승가대 등 29명의 학인 스님에게 각 100만원 총 2900만원을 전달했으며, 통도사 승가대학 8명에게 치하했다.



경봉 스님

詩 바람이 전하는 말, 가곡 되다

한국가곡 100주년 기념 가곡 발표회서 첫 공개

보혜 스님·강한별 씨 콜라보
불교여성문인 섬세한 감성 담아
깨달음 게송 아닌 현대시로 풀어



보혜 스님의 시 '바람이 전하는 말'이 7월 17일 B.O.F 아트홀에서 열린 '한국 가곡 100주년 우리가곡 이야기-돌아돌아 마침내 한국'이란 가곡 발표회에서 발표됐다. 발표회 후 기념 촬영(오른쪽 두 번째부터 보혜 스님, 김지현 테너, 강한별 작곡가)

부산 기장 청량사 보혜 스님의 시 '바람이 전하는 말'이 가곡으로 재탄생됐다. 강한별 작곡가와의 콜라보이다. 한국 가곡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발표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보혜 스님의 시 '바람이 전하는 말'이 7월 17일 B.O.F 아트홀에서 열린 '한국 가곡 100주년 우리가곡 이야기-돌아돌아 마침내 한국'이란 가곡 발표회에서 발표됐다.

발표회에서 김지현 테너가 부른 곡, '바람이 전하는 말'은 2017년 6월에 작시(作詩)됐다.

길 떠난 나그네여 바람소리 들리나요/ 빈 몸 나와 빈손인데 아쉬울 건 없지만은 / 번민 속에 한낱 인생 한줌의 흙이거늘/ 바람이 전하는 말 허공 속에 답해주오.

무념무상 수행의 길에 들려오는 바람이 전하는 말은 부처님의 따뜻한 응원이다. 수행의 가치와 부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노래했다. 보혜 스님의 깨달음을 담은 오도송과 같다. 게송으로 담기는 선시의 형태를 벗어나 문학인의 감성으로 깨달음을 녹였다.

보혜 스님은 "시를 작성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순리'를 알게 됐다. 흐름을 따른다는 '수류'처럼 걸림도 막힘도 없이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 때 나온 시이다"며 "그 당시 행복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얽매임 없이 격식에 걸림 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을 대하니 더 좋은 법문과 당당함으로 이끌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혜 스님은 2011년 〈문학과 문학타임〉으로 시단에 등단한 시인이다. 부산불교문인협회와 부산여성문학인협회에서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며 여성의 섬세한 시어를 불교문학에 담아 불교계 문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차와 관련한 문화활동으로 문화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스님은 한국문학타임 대상, 한국꽃문학상 우수상, 부산불교문인협회 작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집 〈마음에 연꽃피고〉, 〈마음을 보았는가〉, 〈바람이 전하는 말〉을 출간했다. 매년 시 낭송 대회를 열어 한국 문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도 제7차 전국시낭송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곡 '바람이 전하는 말'은 강한별 작곡가와의 만남으로 탄생했다. 2019년 청량사에서 열린 세 번째 시집 출판 기념회에서 김지현 테너가 시를 보고 강한별 작곡가에게 작곡을 제안했다.

강한별 작곡가는 "저는 작곡을 하지만 사실 감성에 젖기 보단 이성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스님의 시는 슬프게 다가왔다. 마냥 허망한 것이 아닌 덤덤하게 슬픈 느낌이었다. 시를 읽는 순간 배경이 바로 전달되었고 곡에 그 느낌을 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를 처음 봤을 때 곡을 길게 적고 싶어 스님의 시 '휴심(休心)'을 덧붙였다. 당시 스님도 같은 마음으로 '휴심'이란 시를 덧붙이면 좋겠다고 생각해 뒀는데 이심전심처럼 똑같이 작성해 놀라기도 했다"며 작성 과정을 설명했다.

강한별 작곡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졸업하고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성악 혼성 팝페라 그룹 '블랑누아', 중국 유나이티드 소녀방송합창단,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 창작국악팀 '모락모락' 등에서 반주자 및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오케스트라와 국악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는 신선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으며 청중과 호흡하는 대중적인 예술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바람이 전하는 말'도 가곡이지만 전통음악에 가까워 사극에 어울리는 영화음악 OST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람이 전하는 말'은 오케스트라와 국악 버전으로 새롭게 녹음돼 올해 11월 8일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 주최하는 기장 국제차문화축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해 여여정사, 삼국유사와 나랏말싸미 북 콘서트

김해 여여정사에서 〈삼국유사〉와 한글창제, 그리고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다시 들어보는 자리가 열렸다.

김해 여여정사(주지 도명)는 7월 15일 '정진원 교수와 조철현 감독이 함께 하는 K-Classic 북 콘서트'를 경내 법당에서 개최했다.

북콘서트는 〈삼국유사〉 및 한글 창제,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불교이야기 등 다양한 역사를 학자적 시선으로 풀어 본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진원 교수는 〈삼국유사〉와 〈월인석보〉를 통해 '금관가야의 역사성'과 '한글창제에 불교가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정진원 교수(동국대 삼국유사학연구소)는 "김해 가야국을 허왕후와 관련해 이해하지만 사실 수로왕의 이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수로는 산스크리트어로 태양, 태양신, 하늘을 뜻한다. 이것을 수르라고 읽는다"며 "훈민정음으로 풀어 쓴 경전 〈월인석보〉에는 한글 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소헌왕후의 이야기가 나온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책이다"고 설명했다.



김해 여여정사는 7월 15일 '정진원 교수와 조철현 감독이 함께 하는 K-Classic 북 콘서트'를 경내 법당에서 개최했다.

영화 '나랏말싸미'를 연출한 조철현 감독은 "영화에서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유래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풀어내고 불교의 역할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아울러 세종대왕의 고뇌를 함께 녹여내 대중들과 새로운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북콘서트에는 주지 도명 스님,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회장 혜진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 스님 및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도명 스님은 "어렵게 모신 교수님과 감독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며 "역사에 대해 뛰어난 강의를 해주신 정 교수님과 여러 영화에서 불교적 가치를 담아주시는 감독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국대 경주캠, '사회통합기관' 현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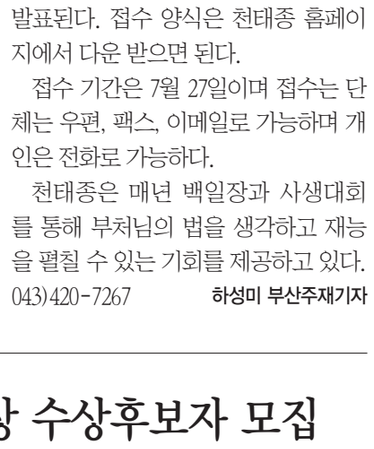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민자사회통합센터가 법무부 연계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재학중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영경)는 7월 21일 교내 백상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이민자사회통합센터가 법무부가 지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기관'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과 이문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비롯한 교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이영찬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민자사회통합센터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기관 선정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보다 강화되고 기존 유학생들의 이탈방지와 유학생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7월 21일 교내 백상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이문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1회 천태어린이 글·그림 대잔치

대한불교천태종이 전국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를 위한 백일장을 개최한다.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전국 천태종 사찰에 다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1회 천태 어린이·청소년 글·그림 대잔치'를 8월 23일에 개최한다.

전국에 있는 천태종 사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회 부문은 산문, 운문 등 글짓기와 그림그리기이다. 그림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파스텔화 등 모든 장르이며 각 부문별 주제는 대회 당일 발표된다. 접수 양식은 천태종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접수 기간은 7월 27일이며 접수는 단체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며 개인은 전화로 가능하다.

천태종은 매년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통해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043)420-726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8회 영축문화대상 수상후보자 모집

봉사실천·학술문화·포교원력 3부문… 마감 10월 30일

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은 '제8회 영축문화대상 수상후보자'를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봉사실천상,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총 세 부문이다.

봉사실천상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사회를 이끄는 개인 및 단체에 수요된다.

학술문화상은 전통문화 및 불교 연구에 이바지하고 발전 계승시킨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단체, 포교원력상은 불법홍포에 매진해 불교인재 양성 및 가람수호에 앞장선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연령, 국적, 학력에 구분이 없다. 스님의 경우 조계종 소속으로 제한된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10일이며 시상식은 12월 2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각 부분별 시상금 천만원과 상패이다.

영축문화재단은 "월하 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을 지내며 수많은 납자들을 제접하고 불교정화 운동의 주역이며 동국대 이사장으로 후학 양성에 헌신하셨다. 그 정신을 잇고자 함이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식은 영축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면 된다.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가능하다. 010-4581-259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불 논단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교수

불자라면 부처님 가르침에
자기 삶의 중심 가치 둬야

법회시 삼귀의 · 사홍서원은
부처님 닮아가는 다짐이자
불자의 삶 확인하는 의식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 속
원력 추구하는 노력 절실
편리함보다 가치 추구해야

삶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함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그에 따른 가치관의 다양함에 기인한다. 삶의 주체로서 우리 각자가 삶의 중심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 스스로를 불자(佛子)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불자(佛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 삶의 중심 가치를 결정하는 이들을 말한다. '불자'라고 스스로 호칭하고 '불자'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이라면, 자기 삶의 중심 가치를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찾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법회의식은 불자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간명하게 드러낸다. 법회의 첫머리에 두어지는 삼귀의(三歸依)와 법회의 마지막에 두어지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이 그것이다. 우리는 삼귀의를 통해서 부처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와 중심 가치를 받아 지니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며, 사홍서원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런 삶에 동참하는 것이 불자임을 법회의식을 통해 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원력에 기반한 삶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자부하기에 스스로를 '불자' 곧 '붓다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런 불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서 오직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괴로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는 부처님의 선언적 가르침이다. 생명 있는 것이라면,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며, 그렇기에 그러한 존재의 '당연한'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원력에 기반한 삶이 불자의 기본자세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삶의 중심 가치는 욕망의 충족이다. 아니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본을 증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삶의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욕망의 충족을 위해 무엇보다 고귀한 생명의 가치는 노동력으로 환산된다. 그 노동력을 좀더 큰 자본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공존과 공생보다는 경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을 악다구니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단순히 사회시스템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던 경쟁과 자본 가치 중심의 삶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 불교는 지난 2500여 년간 일체의 생명있는 것들이 저마다의 가치에 따라 차별없는 고귀함을 갖추고 있다는 생명평등의 정신과, 그 고귀한 생명은 저마다 마땅히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구세주의(救世主義)적 가치관을 추구해왔다. 이것이 불교의 역사 2500여 년간 불자들이 멈추지 않고 추구해왔던 뉴노멀(New Normal)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

불교의 역사는 깨달음과 깨달음에 기반한 삶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할 것이다. 깨달음은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생명있는 것의 당위적인 행복을 드러내는 것이다. 불자는 그러한 세계와 가치에 주저함 없이 동참하는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편리함을 발견하고 현실적인 이득을 발견하면, 손쉽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외면하곤 한다. 물어보자, 저나 여러분이나 '불자답게' 살고 '불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편리함과 사사로운 이익에 골몰해서 불자로서의 삶을 너무 안이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일상설법으로 佛法 전해야

〈육방예경〉은 〈선생자경〉이라고도 부르며, 초기불교 경전으로 다음과 같이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소년 선생(善生)이 온 몸이 젖은 채로 동서남북과 상하의 여섯 방위를 향해 절하는 것을 보고, 왜 절을 하는가에 대하여 물었다. 선생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동서남북과 하늘, 땅을 향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부처님은 의미를 두지 않고 절하는 것은 아무런 공덕이 없음을 가르치며, "동쪽은 부모,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 북쪽은 친구, 땅 아래는 고용인과 하인, 하늘은 승려를 상징하므로, 절을 할 때는 그들을 생각하며 매일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수많은 공덕과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다.

〈육방예경〉은 부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확대 성장하는 인간관계를 여섯 방향의 상징을 들어 설명하며, 수식적 윤리가 아니라 상호 수평적 생활규범을 제시해 주고 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브라흐만)에 대한 예배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경이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고 예의로서 대하고 믿고 집안일을 맡기며, 아내는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로써 순종하고 공경한다. 고용인은 종업인의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키고, 때에 따라 음식을 주고 병이 나면 약을 주고 휴가를 준다"고 설하였다.

불도와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고, 또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이 된다. 고원(高原)에서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을 떠나서 부처도 있을 수 없고 극락도 없다. 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이고 중생이 부처이다. 번뇌가 보리이고,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영가 스님이 〈신심명〉에서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인 무명실성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인 불성이다"라고 노래했다.

〈육방예경〉에서는 계율, 선정, 지혜의 삼학을 잘 닦고, 오계를 잘 지키면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이 찾아온다고 설하고 있다. 〈숫타니빠다〉의 행복장에도 일상생활에서의 평범한 가르침의 실천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모를 잘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잘 돌보고,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며 선지식을 공경하면 행복이다"고 하였다.

법사는 〈독화살의 비유경〉에서 역설한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무기법을 설하거나 황당한 신통이나 기적을 설법해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 속의 평범한 일상사와 평상심을 설법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는 일상(日常)설법을 해야 한다. 곳곳이 바로 부처가 있는 곳이고, 평상심이 도이다.

법사는 여래의 사도이다. 삼업(三業)을 청정히 하고, 육근(六根)이 강건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른다.

몸과 말과 마음, 삼밀(三密)의 실천이 부처와 동일하면, 이 몸 그대로 현성성불(現成成佛)하여 부처를 이룬다. 법사는 주변의 가까운 이웃과 함께 하여 존경받는 생활불교의 선도자인 여민(與民)법사로서 이신포교(以身布敎)를 해야 한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종법 內 '비구니 참여' 확대를

7월 23~24일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비구니 명사 추천 관련 법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대표발의자인 정운 스님(15교구)이 스스로 철회하며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구니 명사는 전국비구니대표단체(명사법계추대위원회) 추천을 받아 재적교구본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법계법 개정안에 명시된 '전국비구니대표단체'를 의미하는 전국비구니회가 종법기구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됐고, 결국 개정안은 철회됐다.

철회 직후 대표발의자 정운 스님의 항변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스님은 "대종사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명문화됐지만 비구니 스님 관련 기준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법계법 개정안은 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며 "법계법 개정이 어렵다면 법계위원회 내에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하는 명사추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원로 비구니 스님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계법 내 비구니 관련 조항은 전무하다. 법계위원회에는 비구니가 참여할 수 없고, 전형 방법과 기본 자격 요건에서도 모두 비구니는 비구에 준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법계위원회 뿐만 아니라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자격도 모두 비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2013년 15대 중앙종회에서 있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 불발 이후 7년이 지났고, 세상은 바뀌었다. 율장의 근본 정신을 지키면서 승가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종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외 유출 성보, 환지본처 돼야

한국전쟁 전후 혼란기에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송광사 '치성광여래도'가 불교계 품으로 돌아왔다.

'치성광여래도'의 환수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다르지 않았다. 해외 경매에 등장한 '치성광여래도'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것이 그 시작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조계종에 즉각 이 사실을 알렸고 종단은 일부 훼손된 화기에도 해당 불화의 원 소장처가 송광사임을 확인, 사찰과 정보를 공유했다. 성보의 환지본처를 위해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송광사 측이 경매 입찰에 나섰고, 반세기 해외를 떠돌던 성보는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예경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과 송광사, 국외문화재재단의 적극적이고 빠른 협업이 일궈낸 성과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2015년 환지본처한 부산 범어사 '칠성도'다. 당시 스위스 경매에 등장한 '칠성도' 3점이 국외소재문화재단의 모니터링으로 발견됐다. 송광사와 마찬가지로 원소장처였던 범어사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빛을 발했고 경매 입찰을 통해 환수에 성공했다. 2016년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던 송광사 '오불도'가 종단과 문화재청의 협력으로 제자리를 찾게 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는 명확하다. 문화재의 환지본처는 불교계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성보의 반출은 상당부분 한반도의 아픈 역사와 괘를 함께하기에, 해외를 떠도는 성보가 아직도 적지 않다. 반출 문화재야말로 우리 민족의 한 맺힌 유산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환수시스템 마련은 물론, 언제든 즉각적으로 환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시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3~7/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칸니 명상 : 아나빠나사띠와 위빳사나수행의 입문서이자 안내서	수망갈라/차은숙	운주사
2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6	낡은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7	티베트 사자의 서	빠드마쌈바와/중암	불광
8	자기 안의 선지식	김광하	운주사
9	약사경	현담스님	선
10	우주의 중심 : 카일라스	김규현/이상원	마음여행

책세상

바로 이해 · 실현 · 증명되는 불교 하자



붓다, 중도로 살다

도법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신비화된 붓다의 모습 걷어내고 이해 가능한 말씀으로 불교 보자"

붓다 깨달음에 이르게 한 건 중도

매주 월 모임 열고 도반들과 토론



붓다의 삶과 가르침을 사회적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해온 도법 스님이 그동안 품어왔던 화두를 점검하고 〈붓다, 중도로 살다〉를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붓다, 그는 누구인가? 붓다,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붓다,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붓다의 삶과 가르침을 사회적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해온 도법 스님이 출가 55년의 세월에서 그동안 품어왔던 화두를 점검했다. 그것은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럽고, 실현되기 어렵고, 증명할 수 없는, 중생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불교에 대한 고민이다. 스님은 그 고민이 자신만의 고민이 아닌 대중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것에서 심각성을 본 후 대중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 〈붓다, 중도로 살다〉를 출간했다. 2017년 판의 개정판이다.

〈붓다, 중도로 살다〉는 "나의 진리, 나의 가르침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바로 이해 · 실현 · 증명된다"고 한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해보자고 만들어진 책이다.

신비화된 깨달음과 기복신앙으로 왜곡된 불교를 어떻게 하면 대중의 삶과 세계를 살리는 진리로 전할 수 있을까. 불법(佛法)의 원형을 온전하게 전하는 전법자로서의 사명을 고민해온 스님은 실상사 극락전에서 매주 월요일 공부 모임을 열고 여러 도반들과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진정한 불교를 탐색하는 자리였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대중이 바로 이해 · 공감 · 수긍할 수 있는 붓다의 삶과 불교, 나아가 불교를 일상에 적용했을 때 바로 경험되고 증명되는 불교를 정리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붓다의 일생이 묵묵한 인내와 심혈을 기울인 정진으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탐구하고 탁마하고 실천하는 삶이었듯 붓다의 삶과 가르침을 좇는 이 책 또한 도법 스님 자신의 삶과 사상이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책은 신비화된 붓다의 모습을 걷어내고, 인간 붓다가 치열하게 걸어간 길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가르침으로 불교를 바라보자고 청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만이 중도 · 해탈 · 열반 · 선정 · 연기 · 삼매 · 팔정도와 같은 불교의 핵심 교리들을 바르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이해한 만큼 자신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苦)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고행과 안락수행을 했지만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한 것은 '중도(中道)'의 길이었다. 중도란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붓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참모습을 관찰하고 사유하면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나아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일어나는 '연기' 진리를 깨달았다. 붓다가 걸어간 깨달음의 여정은 중도가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중도와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인간은 업보대로 태어나 살아야 하는 운명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먹고 행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도법 스님은 인류를 구원할 해법을 '동체대비의 삶'에서 찾고, 이를 '21세기 시민붓다'로 규정했다. 시민붓다의 세계관은 〈화엄생명평화경〉으로 정리하고 그 실천법의 하나로 〈생명평화 백대서원 절명상〉을 만들어 책 말미에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상식의 발견자 붓다가 걸어간 그 길을, 지금 나의 일상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스님은 책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와 공감으로써 대중을 설득한다.

개정판에서 달라진 것들을 살펴보면 깨달음(중도 · 연기)으로 살아간 붓다의 일생이 중도의 팔정도행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명료하게 적고 깨달음이 먼 훗날 도달해야 할 신비한 목적지가 아니고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진리임을 강조하는 등 붓다의 삶에 대해 정리했다.

다음으로는 중도가 참된 수행(실천)의 진리임을 경험적으로 참되게 아는 것이 바로 붓다의 깨달음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존재의 진리가 연기법임을 경험적으로 알아낸 것이 붓다의 깨달음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붓다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 정리했다.

도법 스님은 1966년 금산사에서 출가하여 1969년 해인사 강원을 거치고, 13년 동안 봉암사와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2004년 실상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은 후, 생명평화 탁발순례의 길을 떠났다. 이후 5년 동안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생명평화의 가치를 전했다. 2018년 실상사로 내려와 다시 실상사 사부대중공동체, 마을공동체를 일구고 있다. 현재 지리산 실상사 회주이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로 있다.

초기경전으로 엮은 '입문서'





불교입문 I 해피 스님 지음 / 근본경전연구회 펴냄 / 3만원

불교의 초기경전으로 엮은 불교 입문서가 출간됐다.

근본경전연구회를 창립하고 근본경전(니까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해피 스님이 빠알리어 초기경전을 직접 번역해 〈불교입문 I 〉을 출간했다.

입문서이지만 개론서가 아닌 책의 특별함은 경(經)에 의지함에 있다. 보통의 불교 신자를 위한 신행의 방법을 경에 의해 서술했다. 주석서 등에 의지하지 않고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여 필요한 주제의 결론을 도출하는 '기본이어야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인용한 경의 수는 444개이다. 이렇게 동일한 용례 그리고 뜻으로 연결된 경들을 좇아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불교 교리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불교입문 I 〉은 사실-진리를 위한 공부 이전에 버팀과 위안과 휴식 그리고 삶의 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의 과정을 안내하는 책으로, 부처님에 의지할 때 그런 목적을 진정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부처님에 의해 지시된 불교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끄는 내용을 서술했다.

책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항로'를 시작으로 네 개의 큰 제목으로 구성됐다. 제1부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들어가는 글인 제1장 '불교의 구성원'과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의 용례를 소개한 제2장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행위[업(業)]이다. 행위 즉 업(業)을 토대로 가르침은 설해지는데, 특히 고(苦)의 과(果)와 보(報)를 만드는 행위인지, 락(樂)의 과(果)와 보(報)를 만드는 행위인지의 차별은 가르침의 중심에 있다. 책에서는 십업(十業)[십악업(十惡業)-십선업(十善業)]의 측면으로 접근하여 설명했다. 특히, 십악업을 십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을 자비-사무량심과 보시-애어-이행-동사의 사섭법으로 설명했는데, 사섭법에 대해서는 모든 용례를 담았다.

제3부는 공덕(功德)이다. 행위의 귀결점인 제사(祭祀)의 구체적 의미인 공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공덕을 만드는 행위는 보시와 오계 그리고 수행의 세 가지 토대를 가지는데, 수행은 다음 책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보시와 오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행방법 경(經)에 의해 서술
444개 경 인용 교리 새 해석

제4부는 히리와 옷땁빠 그리고 법(法)들의 전개이다. 제1장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에서 히리와 옷땁빠의 의미를 설명했고, 법들의 전개 두 가지 부류에 맞춰 제2장 히리와 옷땁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와 제3장 히리와 옷땁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로 구성했다.

저자 해피 스님은 49세에 반냐라마에서 출가하여 뿐냐디빠라는 법명을 받았다. 2008년 해피법당을 건립했고, 한국테라와다불교를 거쳐 한국분다와다불교(2019)와 근본경전연구회(2020)을 창립했다. 현재 한국분다와다불교 해피법당(부산)과 해피선원(원주)에서 근본경전(니까야)의 연구와 교재 제작 및 강의에 주력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부처님 가르침 토대로 인생 '확' 바꾸는 기도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 '불행 끝, 행복 시작' 비법

서울 강남 중심지에 자리한 안심정사 서울도량은 6개 전 층에 법당이 조성된 '부처님 빌딩'이다.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이 안심빌딩 옥상에 올라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지계 · 기도 · 나눔 · 원력 불사를 가능케 한 비결

서울 도심 안심정사 불사

안심정사(회주 법안) 서울도량의 이전개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한국불교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100억원 상당이 투입된 불사를 통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6층 빌딩 전체가 부처님 도량으로 우뚝 섰기 때문이다. 근래 불교계에 보기 드문 대규모 불사인데다,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에 일궈낸 것 자체가 놀랍다는 시각이 많다. 안심빌딩은 전 층에 법당이 조성되는 등 부처님 법을 대중에 알리는 본격적인 기도 · 교육도량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개원 시점부터 적지 않은 기대감을 모았다.

사실 안심정사 서울도량 불사는 부지 매입부터 난항이었다. 위치와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적당한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불사의 주역인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으레 그래왔듯이 기도에 집중했다. 29년전 논산 본찰을 일궈낼 당시, 신도 한가구로 시작해 연간 10만명이 운집하는 지역 대표 기도도량으로 성장시켰던 초심과 원력 그대로다.

지난해 11월 11일 법안 스님은 도량건립을 발원하며 1000일 기도에 돌입했다. 불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면서 사부대중의 원력이 더해졌다. 기도의 효과는 그야말로 놀라웠다. 기도 입재 80여일만에 현재의 건물부지와 인연이 닿았고 불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2월 3일 가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문을 연 5월 17일까지, 적지 않은 인연들이 직접 발로 뛰며 부처님도량 안심빌딩의 개원을 도왔다.

불사와 나눔은 반비례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대규모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안심정사의 연간 나눔규모가 오히려 확대됐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안심정사가 군부대에 지원한 초코파이는 무려 2억여원, 햄버거만 1억여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럭키체인(단주)와 법보시 물품, 소외이웃 및 포교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쌀까지 더해지면 나눔을 위한 기금만 10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불사에도 나눔 기금은 나날이 확대되는 기이한 현상은 법안 스님의 확고한 원력에 기반한다. 신도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기금을 사회에 회향함으로써 그 원력이 공덕이 되고 나아가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안 스님은 "안심빌딩 불사는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인 덕분에 가능했다"며 "한국불교에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나눔과 원력, 기도의 힘이 모인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심정사 서울도량 법회 모습.

신심으로 기도 매진하면 삶 · 세상 모두 변화시켜

안심정사의 핵심 '기도'

"정말 잘돼." "불행 끝 행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부처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심정사 신도라면 누구나 입에 붙은 회주 법안 스님의 인사말이다. 안심정사의 캐치 프레이즈이자 신심을 토대로 한 기도의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문구이기도 하다. 암울한 인생, 우울한 마음을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해 이겨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심정사를 추천하는 이유다.

'정말 잘돼' '불행 끝 행복 시작' 등 현대인들에게 솔깃한 문구들은 얼핏 일반적인 불교와 다른 듯 느껴지지만, 법안 스님의 법문과 교리, 기도법은 철저하게 경전에 근거한다.

안심정사가 불자들의 치열한 정진으로 손꼽히는 기도도량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삶이 괴롭고 힘들어 안심정사를 찾은 이들은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를 직시하고 개개인 맞춤 '기도 처방'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신행 생활에 눈을 뜨게 된다. 기도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으면서 참불자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점차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경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법안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행복해 지는 것이야말로 불교"라며 "특히 재가불자들은 기도하고 불교를 믿으면서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고통을 해결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심정사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기도하는 시간과 방식이 체계적이며 이 과정에서 현몽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불자들이 상당수다. 법안 스님과의 상담, 법문을 통해 기도는 점점더 심화되는데 이는 곧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 프로그램은 '재수불공'이다. 말 그대로 재물과 건강을 발원하는 기도이며, 〈화엄대예문〉을 토대로 한다. 〈지장경〉 기도나 철야기도 형태로 심화되며 꼭 사찰이 아니더라도 가정이나 일상에서 같은 시각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도 과정에서 채식을 시작하는 불자들도 적지 않다. 누구보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회주 법안 스님의 영향으로 안심정사 모든 도량은 육류와 오신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스님은 "굳건한 신심과 믿음, 바른 기도법으로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다보면 삶은 반드시 바뀐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자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기도가 답입니다. 걱정말고 기도하세요."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

봉사부터 심화 교육까지 체계적 인재양성 시스템

안심정사의 교육 · 포교

기도하는 불자들은 자연스레 심화 단계로 나아간다. 바로 교육과 회향이다. 안심정사 신도들은 기도로 시작해 자연히 봉사나 포교, 나눔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형태로 이어진다. 스님의 경전 강설과 법문, 사경 등을 통해 수행과 공부의 깊이를 더할수록 자연히 나눔과 사회적 회향으로 관심이 이어져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교육은 법안 스님의 오랜 원력이다. 안심정사에서 30년 세월 동안 불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교의 희망을 봤다. 한국불교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불자 인재양성, 즉 교육을 위한 비전 제시가 절실했다.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던 불자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보다 더깊이 배우고 싶어하는 요구가 높았다. 스님이 〈지장경〉을 시작으로 〈우바새계경〉 〈대지도론〉 등 재가불자들을 위한 경전 강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 6개 도량 중에서도 올해 개원한 서울도량은 교육을 위해 특화된 공간이다. 애초에 보다 본격적인 교육 · 포교 도량으로 운영하겠다는 원력에서 출발했다. 1층 종무소를 제외한 2층부터 6층, 그리고 옥상까지 모든 공간에 법당이 조성돼 자유롭게 기도하고 신행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층에 스크린을 설치해 4층 대법당에서 진행되는 법회를 다른 층에서도 함께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안심정사는 최근 '안심불교문화원' 개소를 준비 중이다. 청소년부터 일반대중, 태고종 전법사 등을 대상으로 초심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이어지는 불교 인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심정사 교육원 산하 팀을 중심으로 커리큘럼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태고종 교육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법안 스님의 원력으로 '안심승신불학원(가칭)' 개원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구상 중이다. 그동안 태고종이 배출한 스님과 전법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상위오명(계율학, 중관학, 유식학, 반야학 등), 하위오명(계율학, 상담심리학, 건축한, 의약학, 상식 등) 강좌, 사찰 운영 및 경영을 위한 실무교육 강좌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이다.

법안 스님은 "코로나 사태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불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은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안심불교문화원' 개소 준비 회의.



안심정사 전국 도량

논산 본찰
주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203번길 12
휴대폰: 010-7422-4557
대표번호: 041)742-4557
계좌번호: 농협 429-01-046837

서울도량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길 18 안심빌딩
휴대폰: 010-6640-4557
대표번호: 02)577-4557
계좌번호: 국민 831001-00-008856

부산도량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다길 149
휴대폰: 010-9421-4557
대표번호: 051)704-4557
계좌번호: 우리 1005-501-906762

대구도량
주소: 대구시 남구 대명로 220
휴대폰: 010-5241-4557
대표번호: 053)625-4557
계좌번호: 농협 301-0217-9108-2-1

제주도량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7길 41 대화빌딩 3층
휴대폰: 010-9476-4557
대표번호: 064)747-4557
계좌번호: 농협 301-0222-9444-21

창원도량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97번 가길 28
휴대폰: 010-8611-4557
대표번호: 055)547-4557
계좌번호: 농협 351-1060-4346-63

사천왕은 처음부터 무서웠을까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⑮ 사천왕 관련 도상



그림 2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사찰에 갈 때면 주지스님께서 주실 빨간 사탕과 약과를 먹을 생각에 무척이나 들떠있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하였듯이 반드시 거쳐야 할 무서운 통과의례가 있었는데, 바로 일주문을 지나 무시무시한 사천왕상을 거쳐가야 한다는 점이다. 때로는 숨을 참고 뛰어가거나, 할머니의 등에 업혀서 자는 척 두 눈을 꼭 감고 사천왕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통과의 방법이었다.

어린 시절의 필자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모습으로 사천왕이 절의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계신지 늘 불만이었다.

사천왕은 어디에서 오셨을까? 처음부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모습으로 무서운 표정을 지었을까?

사천왕(四天王)은 제석천의 명을 받아 불법세계의 사방을 수호하는 네 명의 천신(天神)으로서, 수미산(須彌山) 중턱 유건다라(由健陀羅)의 동서남북을 둘러싼 사방사주(四方四州)에 배치되어 있다. 동방 지국천(持國天, dhṛarāṣṭa: 수호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은 건달바(乾達婆), 서방 광목천(廣目天, virūpākṣa: 여러 가지 색의 눈으로 국토와 중생을 널리 살핀다는 의미)은 용왕, 남방 증장천(增長天, virūḍhaka: 중생의 이익을 크고 넓게 한다는 의미)은 구반다(鳩槃茶), 북방 다문천(多聞天, Vaiśavana: 중생의 소리를 두루 넓게 듣는다는 의미)은 야차(夜叉)를 권속으로 한다. 이 중에서 북방다문천왕은 비사문천(毘沙門天)으로도 불리며, 사천왕들의 우두머리이자 일찍부터 독립되어 신앙의 대상으로 유행하였다.

네 방위를 상징하는 신은 일찍이 서아시아의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에서도 나타나며, 인도 고대 신화에 나오는 야차가 불교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베다 시대부터 등장하여 동 인드라, 서 야마, 남 바루나, 북 쿠베라의 각각의 사방신이 불교 사천왕상의 기원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천왕이 기록된 가장 이른 경전을 꼽는다면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 속하는 〈장아함경(長阿含經, Dīrghāgama, K-647, T-1)〉이다. 이 경전은 후진(後秦) 시대에 불타야사(佛陀耶舍, Buddhayaśas)와 축불념(竺佛念)이 413년에 장안(長安)에서 번역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 불교학자들은 불멸 후 100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장아함경〉의 처음 제1분 대본경(大本經)에서부터 사천왕이 등장하고 있다.

"여러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상법(常法)을 알아야 한다. 비바시보살(석가모니)께서 어머니의 태 안에 계실 때 생각을 오로지 해서 어지럽지 않았다. 네 명의 천자(天子)가 각각 창을 잡고 그를 호위해 사람이나 혹은 사람 아닌 것들이 그를 침노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법이니라. 사방에 있는 네 명의 천자에게는 큰 이름과 위엄과 덕이 있네. 하늘나라 제석이 보낸 그들은 보살을 잘 지키고 보호했네. 손에는 언제나 창을 잡고 보살을 호위해 떠나지 않아 사람도 귀신도 침노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니라."



〈사천왕봉발부조〉, 간다라 3~4세기, 회색편암, 45×59cm, 일본 히라야마이쿠오 컬렉션: 부처님의 성도 후 귀인복장(좌)과 보살복장(우)의 사천왕들이 발우를 바치는 장면

일주문서 만나는 무서운 사천왕상
부처 제세부터 사천왕 신앙 존재
〈장아함경〉엔 '창을 호지' 명시돼
시기 · 지역마다 지물 모양 달라져
무장형 사천왕 중앙아시아서 시작

위 〈장아함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사천왕은 이미 부처님의 재세시기부터 인도 본토에서 등장하였으며, 제석의 명을 받는 네 명의 호법신으로서 창을 호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사천왕의 명호를 구분하는 방법인 칼 · 보배 · 탑 등의 다양한 지물은 이 시기에는 확립되지 않았다.

사천왕의 지물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차이점을 보이며, 지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전 중에서 이른 사례가 당나라 때 아지구다(阿地瞿多, Atigupta)가 654년에 번역한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과 보리유지(菩提流支, Bodhiruci)가 709년에 번역한 〈일자불정륜왕경(一字佛頂輪王經)〉이다.

〈다라니집경〉 사천왕상법(四天王像法)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제두뢰타천왕상법(提頭賴吒天王像法=지국천왕)은 신장은 1주(肘)이고 몸에는 온갖 천의(天衣)를 걸쳐 극히 정묘(精妙)하게 꾸미고 있으며 몸과 상칭(相稱)됩니다. 왼손은 팔을 펴서 아래로 내려뜨려 칼을 잡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팔을 앞으로 구부리고 손을 위로 뒤집어서 손바닥 안에 보배를 지니고 있는데 보배에서 광명이 나옵니다. 비로타가천왕상법(毗嚕陀迦天王像法=증장천왕)은 …왼손은 앞의 천왕법과 같이 하여 팔을 펴서 칼을 잡고 오른손은 창을 잡고 창끝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비로박차천왕상법(毗嚕博叉天王像法=광목천왕)은 …왼손은 앞에서와 같이 하되, 오직 창을 잡고 있는 것만이 다르고, 그 오른손 안에는 적색 동아줄을 잡고 있습니다. 비사문천왕상법(毗沙門天王像法=다문천왕)은 …왼손 역시 앞에서와 같이 창을 잡아 땅에 대고 오른손은 팔꿈치를 구부려 불탑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일자불정륜왕경〉에서 나타난 내용도 살펴보자.

"…다음으로 부처님의 왼쪽의 동북방 구석 쪽에는 제두뢰타천왕(提頭賴吒天王)을 그리되, 왼손에는 삭을 들고 오른손의 곁에서 손바닥을 들어 올리고 있다. 다음으로 부처님의 왼쪽의 동남방 구석 쪽에는 비로차가(毘嚕佗迦)천왕을 그리되, 왼손에는 삭을 들고 왼손은 밑에서 손바닥을 들어 올린다. 다음으로 부처님의 오른쪽의 서남방 구석 쪽에는 비로박걸사(毘嚕博乞灑)천왕을 그리되, 왼손에는 삭을 들고 오른손의 바닥에는 금강저가 있다. 다음으로 부처님의 오른쪽 서북방 구석 쪽에는 다문천왕을 그리되, 왼손에는 삭을 들고 오른손에는 금강저를 들고 있다. 이들 세상을 보호하는 천왕은 각자 무늬가 장식된 갑옷을 입고 반가부좌를 하고 있다.…"

〈다라니집경〉과 〈일자불정륜왕경〉의 내용처럼 사천왕들의 지물에 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복장 역시 천의와 갑옷으로 각기 다르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북방 다문천왕의 경우 그 기원을 재보와 복덕을 관장하는 쿠베라에 두기 때문에, 재보를 토해내는 망구스(쥐)를 왼손에 오른손에는 레몬이나 그릇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사례를 중국이나 티베트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만 생각하고 보탑을 들고 있는 다문천왕을 찾는다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서 사천왕상의 모습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기원전 2세기의 산치 스투파나 기원 전후의 간다라 조각상에 표현된 사천왕은 우리에게 익숙한 무장형의 갑옷이 아닌 인도식 도티를 입거나 중앙아시아식의 튜닉형 원피스를 입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남북조 시기의 사천왕은 보살형의 복식을 갖추고 있다.

갑옷과 투구를 갖춘 무장형 사천왕의 가장 이른 사례는 4~5세기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호탄(于闐, Khotan)지역의 라왁(Rawak) 사원지에서 출토된 점토로 만든 상들과 투르판(吐魯番, Turfan) 토욕(吐峪)석굴 44굴의 네 모서리에 그려진 사천왕 벽화가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무장형 사천왕 도상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정립되어 중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이후 한국의 통일신라시기에 전해져 신앙의 대상이 되어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신라시기 감은사지 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기 외함 사면에는 입상의 사천왕상이 동(창), 서(단검), 남(화염보주), 북(보탑)으로 지물을 들고 네 방위를 가리키고 있으나, 사천왕상의 이러한 지물과 복식의 표현은 특정 경전이나 의궤에 한정되지 않고 시대를 거듭하며 꾸준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그림 2-1

그림 2와 2-1. 〈미륵하생경변상도〉의 좌우 사천왕 부분, 고려 1294, 비단에 채색, 227.2×129cm, 일본 묘만지 소장: 무장형 사천왕 중에서 북방 다문천만이 보탑을 갖추고 있다.

불교 발전 모태 '불완전 인정'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⑮ 과학과 불교의 유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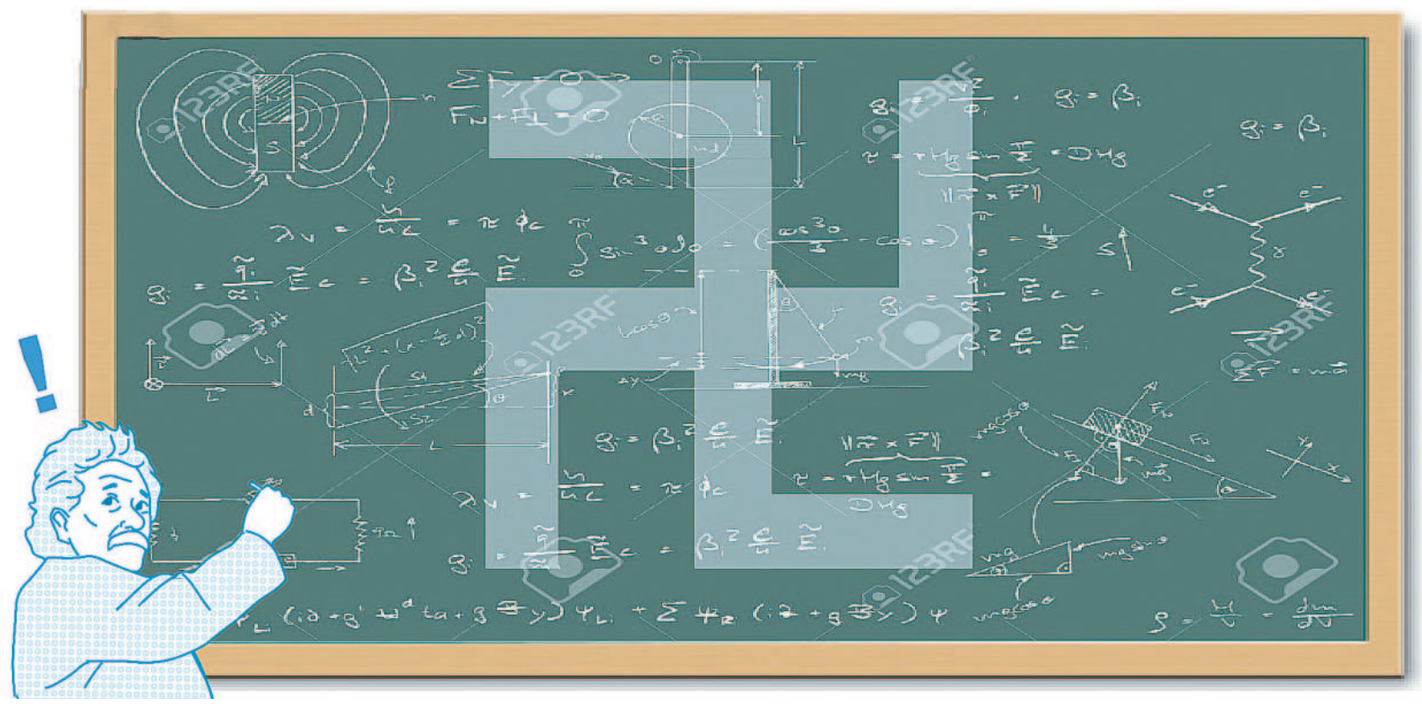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석가모니는 과학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한다. 일본의 최초 노벨상 수상자였던 물리학자 유카와 히데키는 아인슈타인과 함께 반핵 운동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유카와 히데키가 불교의 과학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인슈타인이 감탄한 뒤 '석가모니는 과학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한다. 물리학이 보는 세계와 불교가 보는 세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물리학과 불교의 관계에 관한 저서도 제법 있다. 물리학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면 불교의 연기법이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다.

내가 동국대에서 불교학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화여대 물리학과 김성구 교수도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같은 수업을 듣던 도중에 내가 김성구 교수에게 물리학자로서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불교와 물리학이 놀랄 만큼 닮았다고 말했다. 김성구 교수로부터 불교가 얼마나 과학적인 종교인가를 새삼 알게 되었다.

내가 몸 담고 있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선배 교수가 어느날 내 연구실에 들러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했다.

"윤 교수. 불교신도지요?"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생소한 질문을 하실까 궁금했다. 그분은 정책학 중에서도 정책의 사결정 오류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내신 학자인데 불교신도는 아니지만 불교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셨다. 정책의사결정 오류에 관한 서양학자의 논문을 읽다가 서양학자가 어떤 주장을 한 뒤에 그 영향을 불교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한 글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야심경〉에 대한 질문 등을 하였다.

물리학 등 자연과학의 세계만이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정책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나오는 이론은 불교교리와 놀랄 만큼 닮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은 불교를 매우 오래된 종교, 고루하고 낡은 종교로 인식한다. 과학이나 현대사회와는 거리가 먼 미신 비슷한 종교로 생각한다. 이러한 오해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 불교교단의 책임이기도 하다. 불교는 우리의 오해와는 달리 매우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개혁적인 종교이다. 불교는 2500년 전 낡은 브라만교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나아가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한 종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가 구한말에 선진 의료와 교육제도를 소개했기에 기독교를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종교로 이해한다. 불교가 우리 국민에게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책임은 크지만 불교교리 자체는 매우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종교이다. 무엇보다도 과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교다. 기독교는 진화론에 반대하여 창조과학을 만들어내야 할 상황이지만 불교는 과학계와 충돌은 커녕 서로 지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이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연기법이라는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셨다. 부처님은 연기법을 당신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세상의 이치로서 존재하는 이론을 부처님이 찾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연기법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이후에도 설명될 수 있다.

정치현상은 사회현상의 하나로서 연기법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고 연기법에 의해 생성, 변화, 소멸 되어가는 현상이다. 우리가 정치현상을 불교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과학적으로 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불교가 과학적 종교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항상 오류와 결함을 수정 보완하면서 발전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뉴턴의 이론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수정되었고 아인슈타인의 오류 또한 양자역학 이론에 의해 보완되었다. 따라서 불완전성이 과학의 특성이지 완전성이 과학의 특성은 아니다. 다만 수정 가능한 불완전성, 보완 가능한 불완전성,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불완전성이어야 한다.

불교는 경전에 쓰인 말씀이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경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었기에 그 시대와 장소를 떠나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경전의 불완전성이야 말로 불교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성이다. 경전은 우리에게 달을 보아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설한다. 경전은 달이 아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경전은 흔히 뗏목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우리가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 "뗏목을 머리에 지고 가겠느냐?"

과학과 통하는 불교교리는
불완전 인정, 발전이 원인
연기법 근간, 합리성 토대

고 경전은 반문하고 있다.

손가락에 불과한 경전, 뗏목에 불과한 경전은 과학성을 의미하는 상징이다. 연기의 세계에서 절대진리란 없다. 오직 끊임없이 발전하는 불완전한 이론이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치 이념이나 정책을 절대 진리인양 목을 매는 행위는 매우 비연기적이며 비과학적이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성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오류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불교의 지혜가 빛난다. 한 때 가톨릭이 중세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그 정점에 교황이 있었다. 교황도 허점을 가진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무오류설'이라는 주장이 중세를 지배했다. 교황이 잘못을 저질러도 신의 섭리에 의해 잘못이 교정되어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바로 교황무오류설이다.

안거가 끝나고 잘못을 참회하는 '자자(自恣)'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잘못이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부처무오류설' 같은 생각은 불교에서는 설 땅이 없다. 부처님부터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셨으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학의 아버지일 수밖에 없다.

과학이란 가설을 세우고 현실 속에서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여 검증을 통과하면 이론이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이론도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가며 변화한다. 과학적이란 무엇보다도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검증을 통과하려면 현실 속에서 증거에 근거해 가설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정치에서 어떤 주장이 과학적이려면 증거에 근거해서 그러한 주장이 타당함을 밝혀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구호나 정책목표도 반드시 증거에 근거해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정치적 구호나 정책목표는 이러한 과학성에 기초하기보다는 인간의 감성에 의존한다. 정치인이 제시하는 감성자극적 구호나 왜곡된 정보에 토대를 둔 정책 목표는 국민의 눈을 멀게 한다. 때로는 비이성적 광풍이 정치인과 정당을 죽이고 살린다.

주식시장에서 주가 예측이 워낙 어렵다보니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전문가의 예측이 현란한 자료와 분석에 근거하지만 생각보다 유용하지 않다. 각종 통계를 보아도 전문가의 예측력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는 펀드매니저들이 제시하는 추천 종목의 성과는 형편없다. 주식투자에서 전문가의 예측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기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에게 주식의 이름을 큰 소리로 읽어준다. 만약 반려견이 그 주식 종목을 듣고 짖으면 그 주식을 사지 않고 꼬리를 흔들면 산다. 그렇게 꼬리를 흔든 주식만으로 펀드를 구성한 뒤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 수익률과 비교했더니 반려견이 만든 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한다.

아무리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펀드가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예측이 형편없기는 하지만 전문가의 자료수집과 분석이 이성에 근거를 두는 한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반려견의 꼬리 흔들기로 만든 펀드가 수익률이 더 높다고 해도 짖거나 꼬리 흔들기는 비이성적이므로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비합리적 의사결정은 주술에 의한 결정이다. 중대한 투자를 앞두면 항상 역술인을 찾아간다는 사업가도 있다. 역술인에 의존하는 행위는 비이성적이므로 비합리적이다. 평생 역술인만 찾아다니며 연구한 경희대 서정범 교수가 언젠가 역술인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었다. 뛰어나다고 하는 역술인은 과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를 잘 맞추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그분의 평가였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재주를 가진 게 뛰어난 역술인의 능력인지도 모른다. 역술인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고객의 표정, 음성을 읽고 과거에 관한 단서를 찾아내서 한순간에 고객의 신뢰를 얻으면 무장이 풀린 고객은 마술에 걸린다. 한 두 번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역술인이나 반려견의 꼬리 흔들기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부처님은 브라만 계급이 제사를 독점하면서 각종 점을 쳐주고 주술을 하며 별자리를 보고 행운을 점쳐주는 행위를 비판하셨다. 연기법을 제시하신 부처님은 비이성적인 행위를 금지하셨다. 행위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비이성적이면 비합리적이며 비불교적이다.

부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무조건 믿지 말고 생각해보고 타당하면 믿으라고 하셨다. 부처님에 대한 제자들의 존경심엔 어쩌면 맹목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 개입되기 쉽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감정에 의존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근거에 의해 주장하고 근거에 의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맹목적인 감성 때문이 아니다. 부처님이 연기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삶을 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 부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항상 증거에 근거하려는 노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으로 정치인, 정당,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고려대 명예교수〉

佛·儒·道 아우르며 불교 보호하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⑮ 宋代 사대부 수행자들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국가로서 시대를 막론하고 재가자 활동이 활발하다. 당나라 때도 재가 선자가 있었지만 송대로 들어서는 재가 수행자들이 더 많아졌다. 비슷한 시대인 고려 시대에도 청평거사 이자현(1061~1125)·백운거사 이규보(1168~1241)·이승휴(1224~1300) 등이 있었다. 북송대에는 임제종 황룡파에 소동파·황산곡·장무진 등 재가자가 많았는데, 점차 양기파로 옮겨졌다. 특히 간화선의 제창자 대혜 종고에 의해 배출된 사대부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여기서는 대혜의 재가 제자들과 송대의 대표 거사인 장상영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무진거사 장상영의 행적

무진거사(無盡居士) 장상영(張商英, 1043~1121)에 대해 기록마다 다른데, 괭제청의 〈거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장상영은 과거 급제 후, 통주 주부를 임명받았다. 곧 서적과 관련된 일이다. 하루는 사찰을 방문해 경전의 방대한 대장경 목록을 보며, '나의 공자 성인의 책들이 오랑캐 책보다 못하구나' 라고 자신도 모르게 탄식하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낮에 보았던 대장경의 정교한 목록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 부인 상 씨가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느냐?' 고 묻자,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이런 말을 했다

"아무래도 무불론(無佛論)을 지어야겠소."

"아니, 당신이 이미 부처가 없다고 해놓고, 무슨 논이 필요합니까?"

장상영은 부인의 말을 그냥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가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책상 위에 놓인 〈유마경〉을 읽게 되었다. 그는 '유마거사의 병은 지대(地大)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또한 지대를 여읜 것도 아니다(此病非地大 亦不離地大)' 는 구절에 탄식하고, 경전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 상씨가 이를 보고 또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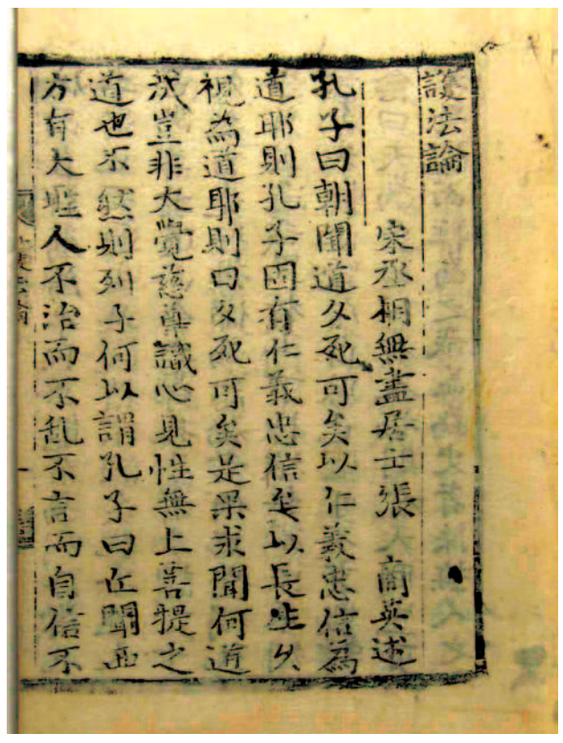
"이 〈유마경〉을 숙독한 후에 무불론을 써보시지요."

장상영은 이렇게 인연되어 돈독한 불자가 되었고, 훗날 무불론이 아닌 〈호법론(護法論)〉을 저술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인천보감〉에 그는 "불교에 귀의해 불학을 공부한 연후에 비로소 유학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전한다. 장상영의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장상영은 사천성 신진 사람으로 자는 천각(天覺), 호는 무진거사(無盡居士)다. 1066년 23세에 진사가 되었는데 왕안석의 추천으로 중앙관직에 올랐고, 1072년 29세에 감찰어사에 임명되었다.

거사는 북송대에 대 선지식인 동림상총(1025~1091)·회당조심(1025~1100)·대혜종고(1089~1163) 등과 교류했고, 진정극문(1025~1102)에게서 깨달음을 얻었다. 장상영은 바로 원오 극근과 대혜의 사제 인연을 매듭지어 준 분이기도 하다.





송대 사대부 장상영이 쓴 〈호법론〉의 표지와 첫 페이지. 〈유마경〉을 읽은 후 불교에 매료된 장상영은 불교를 옹호하는 〈호법론〉을 펴내며 송대를 대표하는 재가불자가 된다.

송대 대표하는 재가거사 장상영
〈유마경〉 탐독하고 불교에 매료
승려들 타락으로 비판 높아지자
불·유·도 합일한 〈호법론〉 펴내

〈호법론〉의 불교사적 의의

'호법', 법을 보호하고, 불교를 선양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 차원이다. 선사가 자체적으로 공부가 되어 유불을 일치시키는 경우인데 운문종은 '선+유교' 의 일치이며, 황룡파는 '선+도교' 적인 측면이다. 다음은 국가에서 불교를 핍박하는 데에 반발해 유불도 삼교를 회통하는 경우이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장상영 이전에도 불일계숭(1007~1072)은 한유(768~824)의 배불에 항거해 〈보교편(輔教扁)〉을 지었다. 조선시대 함허득통은 〈현정론〉, 청허휴정은 〈삼가귀감〉을 통해 유불도 일치 및 배불에 대응하였다. 그렇다면 장상영의 〈호법론〉은 어느 면을 띠고 있는가? 전후자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고 본다.

송나라가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데다 유교를 국교로 했지만, 사찰은 점차 비대해지는 면이 있었다.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경제로 전환되면서 사찰에 재산축재를 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같은 상화에서 몇몇 승려들이 타락하였고, 도첩 판매까지 늘었다. 물론 당나라 말기부터 불교계가 비판을 받았지만 송대로 들어 유교를 숭상한 탓인지 사대부들에 의해 불교가 비판받는 일이 빈번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장상영이 불교를 옹호하기 위해 유교·도교를 아우르는 논을 저술했는데, 이것이 〈호법론〉이다. 〈호법론〉에서 장상영은 '유가에도 다 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인배가 있듯이 불교에도 범성(凡聖)이 함께 있다' 고 하며 불교를 옹호했다. 〈호법론〉은 대장경에 입장(入藏)되었고, 유·불·도 삼교 합일을 토대로 불교를 변호한 논으로 오늘날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기, 환암혼수(1320~1392)가 승준과 만회에게 명하여 청룡사본(충북 충주)으로 〈호법론〉을 간행하였다.

무구거사 장구성의 생애

대혜종고가 일으킨 간화선은 승려 제자보다 재가 제자를 위한 법문이 더 많다. 대혜 문하에서 승려는 84인이 법을 받았으며, 재가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대혜는 어록에서 "크게 한 번 깨달으면 유학이 곧 불교요, 불교가 곧 유학이다. 승(僧)이 곧 속(俗)이요 속이 승이며, 범(凡)이 곧 성(聖)이요, 성이 곧 범이다"라고 하면서 삶과 수행의 길이 곧 하나임을 밝힌 데서도 재가자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선사의 어록 30권 중에도 사대부들과의 법문과 편지가 많이 차지한다. 여럿 제자 가운데, 장구성을 살펴보자.

장구성(張九成, 1092~1159)은 절강성 항주 출신으로 무구거사(無垢居士)이다. 주희는 장구성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도 '선만 하여 뼈 속 깊이 대혜의 영향을 받았다' 라며 그를 배척하였다. 장구성은 '선학이 정묘해 유학 사상과 일치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 유익하다' 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

또한 장구성은 "지금의 학자는 헛되이 자신만을 지키고 있다. 물속이나 불속에 들어갈 정도로 실천적인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산속에 들어가 가만히 수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宋元學案〉"라고 하였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구성이 대혜를 따르며, 참선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장구성은 1141년 진회(秦檜)와 대립했는데, 진회는 '장구성을 수령으로 한 대혜종고 문하의 2000여 명은 해산하라' 고 하며 배척하면서 유배를 종용하였다. 바로 대혜가 장구성과 가깝다는 이유로 대혜도 유배된 것이다. 장구성은 1156년 진회가 죽자, 복권되어 다시 정치계로 돌아왔다.

무진거사의 수행 구도

장구성이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하였는지를 보자. 〈인천보감〉에 시랑(侍郞) 장구성 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장구성이 영은사의 오명悟明 선사를 뵙고 종지를 물어보니 오명선사가 이렇게 답했다. "그대는 지금 한창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을 날릴 때인데, 어찌 생사 문제를 참구하고 있는가?"

장구성이 말했다. "옛 어른(先儒)이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간과 출세간의 법이 처음부터 다르지 않아 옛날 훌륭한 신하 중에도 선문(禪門)에서 도를 얻은 사람이 부지기수이거늘 유교와 불교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불교계의 큰스님인 선사께서 어찌 말로 저를 막으려 하십니까?"

오명선사는 그 정성이 갸륵해서 그를 받아주며 말했다. "이 일은 생각 생각에 놓아서는 않된다. 시절인연이 무르익어 때가 되면 저절로 깨치게 되어 있다. 조주에게 한 승려가 묻기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조주가 '뜰앞의 잣나무니라' 라고 답했다. 이 화두를 들어 보아라."

그러나 장구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호문정공(胡文定公:胡安國)을 뵙고 마음 쓰는 법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호안국은 '논어·맹자의 인의(仁義)를 유추해보면, 그 속에 요점이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공은 그 말을 염두에 두었다. 어느 날, 밤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측은지심은 인이 비롯되는 곳이다(惻隱之心仁之端)' 라는 구절을 깊이 궁구했다. 그러다 장구성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홀연히 뜰 앞 잣나무 화두가 들리며(擧)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 게송을 지었다.

"봄 하늘 달밤에 한마디 개구리 소리가
허공을 때려 깨서 한 집을 만들도다.
바로 이런 때를 뉘라서 알겠는가!
산꼭대기 곤한 다리에 현묘한 도리 있도다."

장구성은 대혜를 한번 뵙기를 바라던 터에 대혜로부터 내왕하라는 전갈을 받았다. 그는 선사를 방문해 여러 벗들과 함께 날씨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다음 날 대혜가 제자들에게 '장시랑이 깨달음이 있더라' 는 말을 하였다.

얼마 후 장구성이 대혜를 찾아와 〈대학(大學)〉에 나오는 '격물의 뜻(格物致知)' 를 물으니, 대혜가 답했다.

"공은 격물(格物)만 알았지, 물격(物格)은 모르는군."

"거기에도 어떤 방편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은 난이 일어나기 전, 낭주 태수로 있을 때 초상화를 그려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당 현종이 촉 땅에 행차했을 때, 그 그림을 보고 격노해 신하에게 그의 목을 칼로 치라고 하였다, 마침 안록산은 섬서성에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모두들 어리둥절했지만, 장구성만 이 말을 듣고 홀연히 깨닫고 게송을 읊었다.

자소(子韶)는 격물(格物)이요.
묘희(妙喜)는 물격(物格)이니
한 관(貫)이 얼마나 되는가?
오백돈이 둘이로다.

장구성은 참 자유를 얻었고, 마음이 텅 비어 의혹이 없어졌다. 이후 장구성은 경산사에 머물고 있는 대혜를 자주 찾아갔다. 1년 후인 1141년에 장구성과 대혜가 유배를 갔다. 〈서장〉에 보면, 대혜와 장구성이 오고 간 편지가 있다. 장구성은 남안(南安)에서 유배생활을 보내는 14년 동안 불교경전과 유가 서적들을 공부하였다. 혹 지나가는 선객이 있으면 반드시 경계를 확인해 보고 선열(禪悅)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나, 한 번도 득실(得失)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장구성을 아는 지인들은 그의 풍모를 높이 평가하며 존경하였다. 장구성과 대혜는 유배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1156년, 두 사람이 만나 오롯이 선리만을 논하였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고려후기 대표 수행자의 각별한 차 사랑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⑮ 원감국사의 차생활





사진 왼쪽은 순천 송광사에 봉안된 원감국사 진영. 사진 오른쪽은 송광사 경내 전경. 능허교 위 우화각은 '신선이 되는 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몽골의 난은 개경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불교계를 변화시켰으니, 바로 개경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교단이 쇠퇴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몽골의 난이 종식되고 왕실이 개경으로 환도(還都)한 후, 교단 중심의 사찰로 그 지위가 회복되긴 했지만, 왕실이 강화로 천도하면서 담선법회(談禪法會)는 몽골에 대항하려는 흐름을 보였다. 이런 불교계의 흐름은 원이 고려 왕실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면서 고려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 더해지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무신정권기에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최충헌(崔忠獻 1149~1219)과 그의 아들 최이(崔怡 ?~1249)의 담선법회에 대한 관심은 이 법회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었던 배경이었는데, 담선법회를 주도했던 수선사는 최씨 정권과의 정치적인 밀착으로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선사가 대몽항쟁기에 몽골에 대한 대항을 주도했던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원은 수선사에 대한 응징의 조처를 내렸고, 다른 한편으론 회유해야 할 불교계의 대표 사찰로 인식했다.

따라서 원은 1273년경 삼별초군의 대몽항쟁을 진압하기 위한 군량미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수선사 사유지를 몰수하려는 조처를 내림에 따라 수선사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원감국사 충지(圓鑑國師 沖止, 1226~1292)는 원 황제에게 〈복토전표(復土田表)〉를 올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원 황제는 원감국사의 요청에 응하여 수선사의 사전을 회복시켜 준다. 원감국사는 이에 감사하는 글을 원 황제에게 올렸으니, 〈동문선〉 표전(表箋)에 수록된 〈상대원황제사사복토전표(上大元皇帝謝賜復土田表)〉이다.

'은택은 높은 하늘에서 내리고 봄은 마른 나무에 돌아오니,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짐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황제폐하의 덕은 모든 왕(百王)의 으뜸이시며 공은 만세(萬世)에 높으시어,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 크게 바다 끝(海隅)에까지 덮어 주시며, 사방이 안으로 향하는 마음을 얻어 천하를 가득히 덮어 주시니, 칭송하는 노래가 중국 밖(中外)에 들끓으며 뛰고 춤춤이 멀고 가까운 데에 차이가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은 성품과 행실이 졸렬하고 소루하며 마음이 천박하고 비루한데, 외람되이 조문(祖門 · 조사(祖師)의 문)의 뒤를 이어 석원(釋苑 · 승계(僧界))의 지남(指南)이 되었나이다. 이 절[寺]은 오세(五世)째의 총림(叢林)이며 육화(六和 중)의 연수(淵藪)입니다. 선종(禪宗)의 진수(眞髓)를 널리 펴서 항상 대중(大衆)의 자리를 비지 않게 하였사오나, 본시 전토(田土)가 부족하여 항상 먹을 것의 부족함을 걱정하였더니, 전일에 선후(先后)께서 이를 민망히 여겨 곧 공전(公田)을 베어 주심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몸을 편히하여 도를 펼 수 있겠다 하였더니, 사신이 처음 와서 군수(軍須 군수(軍需))를 판출할 때에 이에 전에 관한 관적(官籍)을 찾아내어 예(例)에 의해 전세(田稅)를 징수하니, 대중은 많은데 먹을 것이 적어 사세(事勢)가 몹시 곤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이 신거(宸居 대궐(大闕))에 멀어서 하정(下情)이 위에 상달(上達)하기 어려울까 하였더니, 황제폐하께서 더러운 것도 포용하는 도량을 넓히시고 먼데를 밝게 보는 밝음을 돌리시어, 신의 성수(聖壽)를 축원한 지 오래된 정성을 알아주시고, 신이 불법을 널리 편 조그마한 공로를 생각하고 새 윤음(綸音)을 내리시어 신에게 옛 전토를 면세(免稅)하여 주셨습니다. 은혜가 이미 보통에 벗어났사온데 감사함을 어찌 잠시라도 잊겠습니까. 신은 감히 정성을 배나 더 바쳐 우러르며 더욱 대중을 권하여 훈수(勳修)하여, 맹세코 포류(蒲柳)의 여생(餘生)을 가지고 춘령(椿櫺)의 오랜 수(壽)를 어찌 공손히 축원하지 아니하오리까.(澤下層霄。春迴枯枿。凌兢失措。荷戴難任。恭惟皇帝陛下。德冠百王°功高萬世°闡一視同仁之化。丕冒海隅。得四方嚮內之心。光宅天下。謳歌沸於中外。蹈舞均於邇遐。伏念臣性行迂踈。襟靈淺鄙。猥以祖門之踵後。濫爲釋苑之指南。玆寺也五世叢林。六和淵藪。代弘禪髓。恒令衆席以無虛。素乏土毛。常患食輪之不轉。頃蒙先后之憫此。載割公田而錫焉。自玆支命以聊生。謂可安身而弘道。及値使華之初届。點出軍須。迺尋官藉之舊傳。例收田稅。衆多食寡。事迫勢窮。然外國邈隔於辰居。恐下情難聞於天聽。豈意皇帝陛下。廓包荒之量。迴燭遠之明。知臣祝聖之積勞。念臣弘法之微効。優垂新綍。俾復舊田。恩旣出於尋常。感何忘於頃刻。臣敢不倍輸誠而戴仰。益勵衆以熏修。誓將蒲柳之殘年。恭薦椿櫺之遐算)'

몽골의 난 이후 개경 내 불교 쇠퇴
'담선법회' 주도했던 수선사도 고충
원감국사 요청으로 뺏긴 토지 회복
송광사 고승, 차시 통해 정취 남겨

윗글에서 언급된 상대원황제(上大元皇帝)는 바로 원 세조이다. 충렬왕 1년(1275), 원감국사는 원 황제를 만나기 위해 원나라를 방문, 황제의 환대를 받았다. 황제가 원감국사에게 하사한 금란가사(金襴袈裟)와 벽수장삼(碧繡長衫), 불자(拂子) 한 쌍이 이런 정황을 가름할 단서이다. 당시 원감국사는 원 황제에게 축성(祝聖)을 맹세하였는데, 이는 13세기 불교계와 왕실, 원 황제라는 정치적 구도 속에서 고려 왕실과 불교계의 노림수를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려 왕실은 무신정권의 몰락에 따른 왕정의 복고를 위해 원과의 정치적인 강화가 필요했고, 불교계 또한 교단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한 자구책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정치적인 현실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된 것은 바로 원감국사였다는 점에서 그의 역량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감국사는 어떤 인물이며 13세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수행승으로서의 차 생활은 어떤 규모를 갖추고 있었을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수행승이며 송광사를 빛낸 고승이다. 전라도 장흥에서 태어났고 속명은 위원개(魏元凱)이다. 〈고려사〉에 그가 출가하기 전의 행적을 소상하게 기록해 두었으니, 고종 갑진(甲辰 1244)년에 예부시(禮部試)에 장원급하여 영가서기(永嘉書記)에 임명된 후 10여 년 간 환로(宦路)에 올랐다고 한다.

그가 출가한 것은 1254년으로 원오국사 천영(圓悟國師天英, 1215~1286)에게 삭발염의(削髮染衣)했는데, 당시 고려의 정치 상황은 매우 어지러웠던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수행 행적은 돋보였다. 특히 차를 마시며 수행했던 선종사찰의 사풍(寺風)은 여전했으니 이는 그가 남긴 〈원감국사가송(圓鑑國師歌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가 남긴 다시(茶詩)는 수행자의 차에 대한 견해, 차를 즐기는 정취 등을 간요(簡要)한 언어로 표현돼 눈길을 끈다. 최이가 차와 향을 보냈기에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한 〈최이(崔怡)가 차와 향, 시를 보낸 것에 감사하며(謝崔怡送茶香韻)〉라는 시(詩)는 무신정권기 최고의 실세였던 최이와의 관계를 엿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윈 학이 소나무 위에 걸린 달 곁에 잠잠히 서 있고(瘦鶴靜翹松頂月) 한가한 구름, 고갯마루 바람을 가벼이 따르네(閒雲輕逐嶺頭風) 개중에 면목은 천 리 밖에서도 한 가지리니(箇中面目同千里) 무엇 하러 새삼스레 편지를 보내랴(何更新醾語一通)'

담담한 언어로 표현한 여윈 학, 소나무, 달, 구름은 불교적인 상징어다. 특히 윗글의 협주(夾註)는 원감국사와 최이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데, "마침 최이가 순천 지주사가 되어 편지와 함께 차와 향, 〈능엄경〉을 보냈다. 사자가 돌아가며 답장을 청했다. 스님은 '나는 이미 속세를 벗어났으니 편지는 왕복하여 무엇 하겠는가' 라고 했다. 그러나 그 사자가 하도 졸라대므로 이 시를 써 주었다.(崔怡爲順天知奏事 以書遺茶香及楞嚴經 使還請報書 師曰 何修書往 使强迫之 且以詩贈)"라고 하여 당시의 정황은 자세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아무튼 원감국사는 차를 좋아했던 승려였다. 그러기에 그도 햇차를 받은 기쁨을 〈금장대선사가 보내준 차에 감사하며(謝金藏大禪惠新茶)〉에서 은근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특히 이 시를 통해 송 황실의 공납품인 증항차가 그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애로운 선물에 놀라 햇차를 다리니(慈貺初驚試焙新) 자갈에서 자란 찻 싹이라 더욱 진귀하네(芽生爛石品尤珍) 평소에는 가루차만 마셨는데(平生只見膏油面) 기쁘게도 한 움큼 증갱차를 얻었네(喜得曾坑一掬春)'

윗글은 증갱차(曾坑茶)라는 햇차를 받은 감회를 잘 드러냈다. 그가 감격했던 증갱차는 어떤 차일까. 증갱차를 정배(正焙)라 불렀는데, 황실용 차를 만드는 북원(北苑)에서도 증갱 지역에서 생산하는 차는 최고품으로 칭송되었다. 그러므로 원감국사는 감동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증갱차에 대한 동경은 소식(蘇軾, 1036~1101)이 "한 줌의 증갱차/ 제후에게 공납되는 차이라(曾坑一掬春/紫餠供千家)"라고 한 대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차를 좋아하던 송대 명사들도 선망하던 증갱차를 금장대선사가 보냈으니 원감국사가 느낀 감동과 고마움이 행간에 묻어난다. 물욕을 여읜 원감국사도 향기로운 차에 대한 열망은 같았음을 엿볼 수 있다. 명차는 적체와 피로를 풀어주는 청량제다.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 찻잎은 천지의 활활한 기운을 머금었기에 제다의 원리를 환히 알고 있는 삼매(三昧)의 솜씨이어야 차의 순수한 향미(香味)와 기운을 갈무리할 수 있다. 명차란 화후(火候)의 조화로 만들어진다. 차의 통쾌한 기운과 시원하고 싱그러운 향미(香味)는 향상일로(向上一路)를 실천하는 수행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니 좋은 차에 대한 원감국사의 동경은 당연한 것이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자신 믿고 밖으로 구하지 말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㉙ 이오위칙(以悟爲則)

임제가 대중에게 말했다.

"요즈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고 밖으로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모두가 부질없는 티끌 경계에 올라가 옛사람들의 언어 문자에 걸려서 도무지 그릇되고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조사가 있다' '부처가 있다' 하는 것은 모두 교(敎)에서 하는 말일 뿐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경전의 한 구절을 잡아내 그 뜻을 숨겼다 드러냈다 하면 바로 의심이 생겨 하늘을 비추고 땅을 비추어 허둥지둥 당황하여 딴 데로 찾아다니며 묻고 어쩔 줄 몰라 망연자실 하고 있느니라. 대장부들이여, 함부로 왕이 어떻다 도적이 어떻다 하며, 시비를 논하며, 여색과 재물을 논하는 등 쓸데없는 잡담을 늘어놓으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산승은 이 자리서 승속(僧俗)을 구별하지 않고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다 알아버린다. 그가 어떤 곳에서 온다 하더라도 말과 글귀로 하는 것은 꿈이요 허깨비일 뿐이니라."

임제가 또 대중에게 야단치듯 말한다. 자기 자신을 믿고 밖으로 찾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남의 공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스스로 미혹한 길을 가지 말라고 한다. 부질없는 티끌경계(閑塵境)란 외부의 육진경계(六塵境界)를 일컫는 말이나 옛사람들의 말이나 글귀에 의존하는 폐단을 두고 한 말이다. 실참실오(實參實悟)의 경지는 방편상의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禪)은 말 있는 곳을 떠나 말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 한다. '조사가 있다'느니 '부처가 있다'느니 하는 말도 교의 자취라 일축해 버린다. 출격대장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찾는 일 뿐이라는 뜻에서 왕이나 도적에 대한 이야기, 시비를 논하는 이야기, 재색(財色)에 대한 이야기 등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였다. 말하자면 나라의 정세나 사회적 이슈에 민감해지지 말라는 말로 공부하는 사람은 세속 이야기나 정치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는 깨달음을 위해(以悟爲則)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분공부에 몰두하는 자가 세속적 대인관계나 사회적 문제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공부를 뒷전으로 하지 말라는 충고는 수행자의 근본 본질을 먼저 챙기라는 뜻에서 한 경책의 말이다.

〈사문불배왕자론〉을 지은 동진(東晉) 때의 혜원(慧遠 · 334~416)은 세속을 떠난 사문들은 왕이나 제후들에게 예를 갖춰 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그 당시 동진의 태위였던 환현(桓玄) 등이 사문의 집단도 신하된 도리로 왕에게 마땅히 예경을 하여 절을 해야 한다고 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쓴 책이다. 혜원은 이 책에서 몇 가지 논지를 피력했다. 먼저 출가의 본질을 밝히면서 출가자의 생활은 세속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불도를 구하는 수행자는 세속을 따라서는 안 되며 세속생활을 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육체는 일생을 마치면 죽지만 정신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불도를 닦는 사람은 그 뿌리를 견고히 지켜야 하며, 세속의 권력과는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이러한 혜원의 〈불경론〉의 정신은 출가자의 기백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후대의 왕조들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부터 시대의 변천에 따라 권력과 타협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절대 권력에 의한 탄압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적 풍토 속에 출가의 위상이 약화 될 때는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출가 사문의 순수한 정신을 지키며 그 이상(理想)을 달성해 보고자 했던 불배(不拜)의 정신이 한때의 논쟁의 역사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반대로 국왕이나 권력자들이 덕이 높은 고승에게 예배를 한 사례도 많았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佛性의 무량한 공덕



세상 속 경전읽기

㉙ 오지여래(五智如來)

우리 모두는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 불성의 공덕은 무량하다. 무량공덕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이 열반이다. 열반은 번뇌가 다 멸해버렸으므로 멸도(滅度)이고, 영생이므로 불생(不生)이다. 생자필멸(生者必滅)이므로 불생(不生)이어야 영생이 되는 것이다. 열반은 또 지극히 안락하므로 극락(極樂)이며, 얽매임 없이 자유자재이므로 해탈이다. 이를 네 가지로 정리한 것이 열반의 네 가지 공덕[四德]인 상락아정(常樂我淨)이다.

열반사덕에서, 상덕(常德)은 항상 변함이 없고 생멸이 없음을 말하고, 낙덕(樂德)은 무위안락함, 곧 인연생멸을 떠난 안락함이다. 아덕(我德)은 신통묘용(神通妙用)이 크게 자재로운 8대자재아(八大自在我)인 것이고, 정덕(淨德)은 일체 번뇌의 오염을 벗어나 청정한 것이다.

팔대자재아는, '1) 능히 한 몸이 여러 몸이 됨. 2) 한 티끌 몸이 대천계를 가득 채움. 3) 큰몸을 가볍게 들어 멀리가게 함. 4) 무량한 종류를 나타내 한곳에 머물게 함. 5) 6근을 서로 교차 사용함. 6) 일체법(일체현상)이 무법상과 같음. 7) 한 게송의 경을 무량겁동안 설함. 8) 몸이 모든 곳에 두루 편만(遍滿)하여 허공과 같게 함.' 등이다.

불성의 무량공덕은 간추려 오지(五智)로 나타낼 수 있는데, 1)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 · 제9 암마라식(菴摩羅識), 곧 정식(淨識)을 전(轉)한 바로서, 법계의 모든 현상의 차별적인 모습의 본성인 법계체성(法界體性)이 곧 육대(六大)라 육대법계(六大法界)의 삼매에 머무름을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라 함], 2) 대원경지[大圓鏡智 · 제8 아뢰야식(阿賴耶識)을 전(轉)한 바로서 법계의 만상(萬象)을 현현(顯現)함이 대원경(大圓鏡 · 커다란 둥근 거울)과 같은 지(智)], 3) 평등성지[平等性智 · 제7 말라식(末那識)을 전(轉)한 바로서 제법평등(諸法平等)의 작용을 이룩한 지(智)], 4) 묘관찰지[妙觀察智 · 제6 의식(意識)을 전(轉)한 것으로서 제법을 묘분별(妙分別)하여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고 설법(說法)하여 의심을 끊어주는 지(智)], 5) 성소작지[成所作智 · 안식(眼識) 등의 전오식(前五識)을 전(轉)한 바로서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묘한 일을 성취한 지(智)]의 다섯 가지 지혜이다. 이 오지는 결국 전5, 6, 7, 8, 9식을 지혜로 바꾼 것[轉識得智]이다.

불성이 현현한 것이 열반이므로, 불성공덕과 열반사덕은 같은 것이므로 서로 배대될 수 있으며, 법계체성지는 총덕[總德 · 열반사덕을 합친 것]에, 대원경지는 아덕에, 평등성지는 낙덕에, 묘관찰지는 상덕에, 성소작지는 정덕에 각각 배대된다.

오지 각각을 갖추어 인격화한 것이 오지여래로 위의 각 지혜의 순서대로, 1) 비로자나불, 2) 아축불, 3) 불공성취불, 4) 미타불, 5) 보생불이 오지여래이다. 이상은 중생이 성불을 향해 나아가는 상전문(上轉門)이고, 붇다가 중생을 제도하는 하전문(下轉門)에서는 평등성지가 보생불, 성소작지가 불공성취불에 배대된다.

"동방의 아축불(阿閦佛)은 대원경지(大圓鏡智)[또한 금강지(金剛智)]로 인해 이룩되고, 남방의 보생불(寶生佛)은 평등성지(平等性智)[또한 관정지(灌頂智)]로 말미암아 이룩된다. 서방의 미타불(彌陀佛)은 묘관찰지(妙觀察智)[또한 연화지(蓮華智), 전법륜지(轉法輪智)]로 말미암아 이룩된다. 북방의 불공성취불(不空成就佛)은 성소작지(成所作智)[또한 갈마지(羯磨智)]로 말미암아 이룩된다. 중앙의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은 근본이 되는 법계지(法界智)로 말미암아 이룩된다."〈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 T1665_.00.0573c24-c29〉

금타대화상의 〈금강심론〉 '제1편 1인전에 1인도 제2장 보리방편문 제4절 오지여래'에, "(법보화 삼신일불인) 아미타불은 법계체성인 1법신에 평등성으로 묘관찰하는 대원경적 능지(能智)보신과 성소작의 소지(所智)화신을 겸(兼)하고 사지(四智)에 만덕(萬德)을 함께 갖추니라"고 오지(여래)와 삼신의 관계를 명쾌히 정리하고 있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㉕ 닦음의 길 15

二入四行, 진리 이르는 두 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보리달마(菩提達磨)는 선불교를 중국에 전한 인물이다. 선(禪)이 전래되면서 적지 않은 오해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선불교가 언어, 문자를 부정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오해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전통에서 기인한 것 같다. 선에서는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서(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선에서 부정하는 것은 언어, 문자가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문자에 머무는 한 결코 진리라는 달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학(敎學)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標月之指), 즉 방편이다. 붓다의 말씀을 담은 수많은 방편을 통해 달을 볼 수 있다면 이는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일이다.

이입사행(二入四行)은 선이 교학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달마의 수행체계다. 이것은 진리에 들어가는 두 가지 길과 네 가지 수행을 의미한다. 먼저 두 가지 길이란 이치를 통해 불법의 대의를 깨치는 이입(理入)과 수행에 의지해서 진리에 들어가는 행입(行入)을 가리킨다. 달마에 의하면 이입(理入)은 경전을 통해 모든 중생이 부처와 똑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굳게 믿는 것이다. 다만 번뇌, 망상이라는 먹구름이 붓다의 성품을 가리고 있으므로 벽관(壁觀) 수행을 통해 이를 걷어내야 한다. 그러면 나와 너, 범부와 성인이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깨침은 자교오종(藉敎悟宗), 즉 교학에 의지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달마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입만으로 깨침에 이를 수는 없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들어가는 두 번째 길인 행입(行入)이다. 달마는 네 가지 수행(四行)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보원행(報怨行)이다. 이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누군가 자신을 힘들게 하면 대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텅 비우는 일이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 자신이 행한 업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행자의 큰 적인 미움과 원망을 지혜롭게 대치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연행(隨緣行), 즉 인연 따라 살아가는 일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因緣生) 인연이 다하면 소멸하는(因緣滅) 다이내믹한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잘 살펴서 순간순간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뜨거운 여름과의 인연도 소멸해야 아름다운 가을 단풍과 만날 수 있고, 가을과도 이별해야 눈 내리는 하얀 겨울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장자〉의 '인연따라 자신의 삶을 즐기라(隨緣樂命).'는 가르침과 통한다. 수연행은 상황에 먹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수행이다.

세 번째는 무소구행(無所求行), 즉 구하는 바 없이 실천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空)하며, 인연 따라 생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무소구행은 이러한 이치를 살펴서 세속적인 욕망과 자신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칭법행(稱法行)으로 이것은 모든 것을 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와 너,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임을 밝게 깨쳐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일이다. 여기에도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연기의 진리가 작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달마는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경전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깨침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안내서로 인식하였다. 그는 특히 〈능가경(楞伽經)〉을 중시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교학에서 그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깨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벽관 수행을 강조한 것이다. 벽(壁)은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달마는 번뇌, 망상이라는 바람을 막고 우리 모두가 부처 되는 진리의 길을 보여준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직시’에서 해법이 나온다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⑮ 회피와 절망



15-1 안 그런 척하고 그런 척하고 아닌 척하고인 척한다.

우리말이 참 멋있지 않나요? 무슨 말이 이런가 싶지만 우리네 삶의 한 측면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회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피는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 그리고 행동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나면 무의식적 방어가 일어나는데 먼저 괴롭고 힘든 상황을 인지적으로 부정하여 생각하지 않으려 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정신적 트라우마를 받으면 기억 상실에 이르기도 하지요. 감정적 회피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반응이 정상적인 데 반해 감정적 무감각, 무감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 차원에서는 비슷한 장소나 상황을 피하고 사람들을 피하여 외출을 못하고 칩거하거나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수면 과다나 불면증, 폭식이나 식욕부진 등으로 나타납니다. 속으로는 엄청난 상처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거나 속으로는 괴로우면서도 아무 괴로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모두 회피 반응들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차를 피하고 운전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15-2 어느 의대생이 인턴을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원하는 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급 의사가 사사건건 나무래고 지적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하루는 술에 만취하여 다음 날 출근을 못하게 되었지요. 그런 일이 두 번 세 번 일어나자 주임 교수까지 알게 되어 경고를 받습니다. 낙심하여 의사를 포기하고 자살할 생각까지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여 비난과 모욕을 한 귀로 흘릴 수 있다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 채찍질이 되었을 텐데요. 괴로움을 달래려고 술에 의존하고 자신을 비난한 상급자에게 화를 풀 길이 없자 상대를 원망하고 절망하게 된 거지요.

15-3 우리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아프다고 괴로워하고 쾌락을 주는 것들로 도피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슴으로 보살피기 보다는 자신을 판단하거나, 무시하고 고치려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대신 머리로 따지고 평가하며 살고 있지요. 아픔을 경험하고 달래주고 보듬어주는 데 서툴지요. 그 이면에는 사랑을 잃을까 봐 겁내는 아이가 있지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대신 실수나 잘못을 무섭게 야단치고 체벌까지 하며 훈육한 양육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이는 인정받고자 온갖 노력을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척하며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상처받은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대신 비난과 평가로 다스리며 의붓 자식처럼 소홀히 대해 왔지요. 아동 학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15-4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하던 외동아들을 갑자기 잃은 어떤 여인이 거의 실성하다시피 되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위신력으로 제 죽은 자식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삼대째 초상을 치루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 하셨지요. 자애로운 부처님 답변에 눈물을 흘리며 “예, 꼭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녀는 겨자씨를 얻으려 그 길로 온 마을을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발바닥이 부르트고 피멍이 맺도록 찾아가 보았지만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절망하며 다시 찾아온 그녀에게 부처님은 냉정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마련이다.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없다.”

집집마다 다니며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그녀는 그 길로 출가하여 마침내 번뇌를 여의게 됩니다.

15-5 심리치료나 명상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직면하기와 수용하기입니다. 2600년전 부처님은 현대 심리치료의 핵심에 정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떨어졌을 때 호랑이로부터 도망가거나 싸우려 드는 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호랑이를 없애려는 노력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없앨 수 없다면 호랑이라는 고통속으로 들어가기, 대면하고 경험하기가 올바른 해법이라는 걸 이야기하였지요. 도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외상 경험을 재현해 다시 경험하되 아픈 마음을 안아주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치료자와 함께 해 나갑니다. 주의깊게 보는 능력이 커질수록 마음의 요동 반응도 점점 가라앉아 평정심을 유지한 채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외면에도 존재하는 원인
근본자리 제대로 살피고
근본치유로 상처 메워야

그러나 그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고 경험 후에 생긴 결론(신념)을 우선 해체하는 인지적 수준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곳은 없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나는 망가져서 예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누구도 이런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등 사고 후 내린 부정적 결론에 붙들려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분 부정이 전체 부정으로 확대되어 삶 전체를 호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상태가 석달 이상 지속되면 거의 평생 역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나 세월호처럼 죽음의 위협을 직간접으로 겪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끼는 가족의 불의의 사망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를 겪은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 부르지요.

15-6 두 번째 단계는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며 속마음을 들여다 보는 훈련을 해보아야 합니다. 칡넝쿨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떠오르는 연상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호랑이 꿈을 꾸었을 때 호랑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획일적인 답입니다. 꿈꾼 사람의 의식에 호랑이가 무얼 의미하는지 연상을 통해 추적해들어가는 게 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같은 호랑이라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군요.

〈금강경〉을 보면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문답이 이어지는데 부처님은 이미 연상 기법을 탁월하게 사용합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보리의 연상에 이은 또 연상을 고무시키는 질문 “또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러한 연상적 질문을 통해 수보리의 깨달음을 촉발시킵니다. 사실 부처님은 높은 선정 수행과 6년 극한 고행으로도 깨닫지 못하자 다시 태자 시절 품었던 고통의 원인에 대한 사유를 전개하여 마침내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고 전개되어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낱낱이 통찰합니다. 연기법이지요. 초기 경전 가운데 상윳타니까야를 보면 도처에서 명상 중에 이러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는 대목들을 접합니다. 모두 연상에 입각한 사유를 통해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것을 깨우치는 장면들이지요.

15-7 마음을 연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다의 연기법은 사변적 개념적 성찰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각과 감정을 보고 그 앞뒤 맥락까지 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과 생각을 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대부분 생각은 상대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은 상대를 평가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보고 상대에 의해 일어난 마음의 파문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지요. 타인의 대들보만 보고 자신은 잘못이 없는 척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공부는 자신이 척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내려놓는 것이 솔직한 태도입니다.

힘들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 어떻게 명상해야 하나요?

답답한 감각을 지켜봅니다.

다리가 저리면 저림을 지켜봅니다.

호흡을 바라보세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불편한 감각으로 호흡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생각보다는 감정을, 감정과 함께 감각을 그윽히 지켜보노라면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겪은 일일 수도 어제의 일일 수도 어린 시절의 일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켜봅니다. 드라마 보듯 지켜보되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15-8 물론 보는 힘이 커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후 그 생각이 일어나게 된 전말을 볼 수 있습니다. 허지만 처음부터 그리 되지 않아도 속상해 할 필요 없습니다. 속상해하는 마음을 보면 되기 때문이지요. 속상해하는 마음속엔 어린 시절 상처받고 울고 있는 나와 오버랩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속에는 나를 몰아치고 다그치는 사람이 있군요. 화도 마음대로 못 내고 울음도 뚝 그쳐야 하고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 내 감정 내 주장을 억눌러 왔군요.

울고 있는 아이를 꼬옥 보듬어주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어루만져주세요.

실컷 울도록 허용하세요.

흐느낌이 되어 잦아들 때까지 충분히 놔두세요.

15-9 삶의 구비마다 만나는 스트레스를 깨닫는 도구로 여기면 우리는 낙오자가 아니라 성장하게 됩니다. 아까 의대생도 비난과 모욕을 감당하고 극복했으면 더 강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성장했을 텐데요. 실패나 비난을 경험하지 못한 여린 마음이 쉽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아 나는 괴로움을 술로 달래야만 하는 못난이로 의사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것은 머리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를 가슴으로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가슴으로 느끼면 상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내면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그 의미를 깨닫기가 치유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상처의 의미를 깨달으면 상처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님을 느끼게 되지요. 치유는 용서가 일어나면 완결됩니다. 용서가 되면 상대의 아픔을 오히려 연민하면서 감사의 념이 우러나오고 상처는 아물게 됩니다.

꽃은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 도종환

〈한별정신건강병원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05호 | 15 | 전면광고

너는 장차 이 세상에서 나무 아래 앉아서 풀을 깔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악마의 권속들을 항복받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현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똑소리나게 풀어냅니다.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누구나 풀수 있구요.
▶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 인생, 인체의 병, 영가, 일년신수, 왜! 원인과 해결)
▶ 과거/현재·미래·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①네이버 운명자가진단 손금보기
②유튜브 손도사 동영상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먹으로쓴 반야심경8폭병풍
소장하실 불자님 연락주십시요
지리산감나무골 운송도암
010-9208- 3835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살풀이,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술술 풀리는 사주강의
스님들, 불자님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절운영과 삶에 큰 도움이 될 사주를 2개월 만에 막힘없이 술술 풀도록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장소는 경주시이며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강의 할 것입니다
010-7307-1727

"록명법"
취업·입시
각종 수험생
합격 100% 비법
010-7189-7674
010-5904-3759

• • •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 • •
010-8833-4416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제의식 능통하신 분
• • •
경북 문경 쌍룡사
010-8819-8988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생각대로 되는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대방광불화엄경 사상강연회!!
1. 초발심자가 문득 정각을 이루는 원리?
2. 중생이 금생에 성불하는 방법?
3. 세계적 대질병에 대한 법신불의 대약수는 무엇?
4. 교재는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
5.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6. 장소 : 예인스페이스(강남역 10번출구, 외환은행 뒷편 4층)
문의전화 ☎ 010-9150-1044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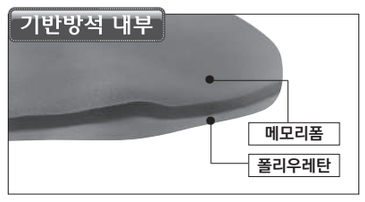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05호 | 16 | 전면광고

지금 이 순간을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12평.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19평. 공양간. 방1개. 7평 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 대지 : 60평 / 법인양도 가능
- 법당, 요사, 접견실, 나한전, 차고
- 도심포교 요충지(시설.비품 일체)
- 양도 또는 산중 사찰교환가능
- 양도가 : 3억 4천 (보시고 절충)

010-7763-446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1300년 고목,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4990

사찰·기도(터) 안내

- 위치 : 김해 선안다리 5분거리
- 물건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 주변이천세대, 시세 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만원(은) 2억3천 포함
- 부산 장림역1km 토지 5천여평
- 신촌초 옆 주거지 1천여평 포함
- 가액: 7억5천(은)3억3천 포함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문화재사찰
- 위치: 부산 최고의 바다전망
- 대지500평, 임야3600평
- 법당 산신각 천불전 요사체
- 가액 23억
- 스님건강상 매도

010-2104-2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 수락산역 등산로입구 (먹자골목)
- 약 30평 / 방3 / 법당 별도
- 총3층 건물 3층(옥상사용)
- 보증금 5천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5백만원

※ 불교서적 1천권 무료드림

010-5656-27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앞 도로변 3층
- 평수 : 50평, 방 3개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없음

010-9110-3301

멋진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 (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동 진 불 사

◎ 위치 : 경북 영주시 장수면 소재
◎ 부지 : 1천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1억2천5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 조용한 산사에 위치한 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입니다.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1천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60평(목조, 황토)
◎ 산신각 : 10평(목조, 닷집, 단청)
◎ 기타 : 석탑, 석등
◎ 가액 : 9억2천만원
◎ 특징 : 1급수 계곡과 조경이 어우러진 대가람의 사찰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동진불사 010-4942-0455

좋은법당안내

- 위치 : 일산서구 큰도로 정류장앞
- 평수 : 약50평, 2층건물 2층, 삼존불 모심
- 전세 1천만원, 월세 60만원
- 기타시설비 보시고 결정
- 본인 건강때문에 인연 닫는 분께 양도

010-4029-515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천수천안사,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50만원
- 시설금 2천 5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세종시 전의면 (청정도량)
- 대지 : 550평, 삼성각4평 목재
- 건평 : 대웅전 24평 목재
- 요사채 : 약 30평, 황토방 10평
- 가액 : 6억 5천
- 주차장시설 완비

010-6768-71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 대지 : 114평
- 건물 : 법당, 요사채(방3, 주방, 거실, 화장실)
- 가액 : 1억 1천만원 (대출 2천5백 포함)
- 장호원 차로 5분거리, 공사중인 경전철 차로 8분거리

010-3326-785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
부 동 산
사찰양도 전문
명진도사
◈◈◈

010-4492-347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 중심 풍수대명당, 전주 한옥마을 10분거리, 사찰에서 전주가 한눈에 들어옴
- 등기면적 : 4백여평, 실제 사용평수 1천여평 국유지 절 뒤 1만여평 무상 사용중
- 석불(산신, 용왕, 아미타불, 지장보살, 약사여래불)1억5천 석불로 3천전 모심, 극락전 1억 3천전 신축, 약수터 최상, 대나무숲, 법당, 요사채 1억5천 3년전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40평), 현재 도량 마당 1억 공사중
- 가액 : 5억(대출 2억5천 포함)

010-9647-072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 황토구들토굴 방2개
- 본채앞 조립식 약4평 1년 8백만원
- 건물 7백만원

010-9288-00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송구 동산동 동산병원옆, 동산네거리 대도로접 3층
- 40평, 방2, 응접실, 다용도실, 3층건물 3층
- 보증금3백만, 월30만, 시설비 1천5백만
- 즉시 법회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1-9572-465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 부지 : 500평(대지250평)
- 법당(16평), 종무소(6평), 창고 (4평), 종무소2(18평 콘크리트 건물 신축), 요사채+휴게실+창고(30평), 산신각
- 가액 : 4억 5천만원 (북원주IC 5분거리 서울 이동시간 적절)

010-8969-50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암자
- 대지 : 약 2100평
- 법당, 산신각, 용왕당, 기도장, 석탑, 범종
- 가액 : 전세 보증금 1억 (월세없음)

010-6717-6826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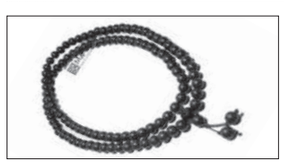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03 호 현대불교 17
2020년 7월 29일(음 6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우리가 살림살이하는 것이 전부 공부하는 과정이며 바로 보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도량에 와서 공부 아닌 공부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것을 볼 때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자세가…, 이런 말이 있죠. "서까래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리고 어머님 전 살을 빌려 이 내 일신 태어나니 공이로세, 공이로세, 공이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이라는 그 뜻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공이라는 이치만 알았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한 발짝 떼 놓으면 고정된 관념이 없고 고정된 걸음이 없고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어서 그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인생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늙으면 죽고 태어나 자라면 젊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젊었으면 늙을 거를 준비하고 늙었으면 또 젊을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그 모습을 다시 진화시켜서 바꿔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자기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에 의해서 차원이 얼마만큼, 이차원이냐 일차원이냐 삼차원이냐에 따라서 그 진화는 모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습에 의해서 남을 지배를 할 수도 있고 남한테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의 자세가,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는 것도, 남에게 착을 둔다는 것도 욕심입니다. 착을 두는 것도 욕심이지마는 모든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 그것은 올바로 해야 착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지 올바로 못 한 채 욕심을 부린다면 그건 착이고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해라. 올바로 해라." 하는 것은, 내 경우를 볼 때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물 안쪽에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아니, 아마도 나이 어려서부터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여러분처럼 공부라는 생각도 없고 공부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를 보고 또 형제를 보고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또 짐승을 보고 풀들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하염없이 흘러 내려가는 그 물은 내 눈물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 얻다가 하소연을 할 데가 없었습니다. 얻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기에 내 마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서까래에다 꼭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 서까래는, "서까래의 공덕" 이러는 거는, 서까래는 자기의 그 자성의 주장자라고 볼 수 있다면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와 같기도 하고 씨와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 내는 그 생각이 바로 생각 내기 이전 그 심봉에 의해서, 반드시 자기는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받고 그래서 인생이라고 이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뼈를 빌린 아버지나 살을 빌린 어머니나 또 영원한 씨인 주장자의 그 불성이나, 그 불성이 아니었더라면 뼈도 빌릴 수 없고 살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법의 스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참자기라고도 볼 수 있고, 부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이르러서 이 모습을 두고 착을 둔다 하는 것은 역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부터 착이 되고 착이 됨으로써 그게 끊이지 않는 인연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연줄은 마음으로 인연을 끊지 않는다면 절대로 물질로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얽히고설키고 해서 살아나오면서 그 인연줄에 의해서 자기가 빠져나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붙드는 그 상대방도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인연줄에 얽히고설킨다면 양면이 다 죽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 하면 사는 길이 있듯이 모든 것을 맡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서 어찌 사랑이 없고 또 도의가 없고 의리가 없고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거죽으로는 천연덕스럽게 하면서도 마음과 더불어 착, 욕심, 그 모든 것을 맡겨 놓고서 사랑한다면 무궁무진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고도 변치 않는 사랑이 되고 영원한 사랑이 되고.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에다 착을 두지 않고 모습으로 인해서 울고 쓰라려하지 않습니다.

벌써 한 8년 전 얘깁니다마는, 사랑을 하기에 남편에게 돈을 다 들이대 주기도 한 그런 첩도 있었으니 그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큰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한데 자식들은 7남매나 낳아 놓고 회사가 망하니까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니 할 수 없이 돈 많은 여자를 택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돈 많은 여자가 돈을 많이 들이대 주고 큰집도 다 살림살이해 주면서 시봉을 하다가 그만 돈을 다 없애고도 또 딴 사람 거를 대 주었습니다. 대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남편을 사랑하기에 다시금 큰집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유서를 써 놓고서 자기는, 자기가 없어져야만 그 돈의 출처를 자기가 안고 갈 테니까 고만 유서를 써 놓고 가 버렸습니다.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자살을 할 때 그 사람이 유서에 써 놓기를 뭐라고 써 놓았느냐 하면, "인생은 공(空)이로세.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길에 내가 남의 입초시에 오르내리기를 좋아한 것은 아니나 나는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그 식구들을 내 아픔과 같이 생각했노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식구들을 다 위해서 나는 가노라." 이렇게 유서를 써 놓고선, "형님! 형님이 나이고 내가 형님이니, 형님! 아무쪼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 마음을 넓게 쓰시고 사셔야 나도 보람을 느끼고 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선 유서를 써 놓곤 간 일이 있습니다. 저 원주에서 있었던 얘기죠.

그런 사람도 있듯이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면 물질로서 사랑을 하지 마세요. 내 예를 든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 그 서까래를 붙잡고, 자기 불성의 기둥을 붙잡고 거기에 하소연을 하고 한번 울고 나면 속이 후련했거든요. 꽁치꽁치 뭉쳤던 것도 그걸 붙잡고 울고 나면 다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바깥으로 돌질 않은 겁니다. 바깥으로 돌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는 반면에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의 그 이치라든가 상식의 문제, 또는 우리가 모두들 "과학, 과학" 하는데 과학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풀 이파리 하나를 봐도, 벌써 이렇게 기울어진 것만 봐도 '아휴! 너도 나와 같구나.', 비틀어진 것만 봐도 '너도 나와 같구나.' 이러고 불쌍히 생각이 들면서 간절히 그저 둘이 동시에 하나가 돼 버리곤 하나가 돼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을 줘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내쫓고 고난을 줘도 나는 아버지의 탓을 절대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은 다 공부를 시키고 나는 안 시켜 줬어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심입니다, 이거는.

그것은 모든 것이 내 탓이지, 내가 이 세상에, 즉 서까래 공덕으로서 뼈를 빌리고 살을 빌려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찌 그 탓을 하겠습니까? 인연 따라서 만났거늘, 인연 따라 만나서 살다가 헤어지는 거는 일찍 헤어지고 나중 헤어지고 그것뿐이지 무엇을 탓을 하겠습니까? 마른자리 진자리 바꿔 가면서 뉘어 주고 물 떠다 세수시켜 주고, 배고프면 밥을 떠 넣어 주고 젖을 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낳고 싶어서 낳았느냐고 이렇게 막말들을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합디다마는 그것은 인연에 따라서 오는 거지, 억지로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이 진리고 순리적이고 바로 자동적인 것을.

그러니 스님들이 사는 도량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화목을 도모하고 조화를 이루려면, 옛날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지마는 화목을 가져오는 것도 내 마음에 따라서 화목을 가져오는 것이지, 내 마음이 아니라면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벌써 육신에 착을 둔다면 절대로 이건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분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걸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주장자의 그 주인공에서, 모든 것은 다 지수화풍의 이치에서 일어나고 순서 없이 일어나는 것을, 사계절이 일어나듯이, 그저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하는 거는 그 안에서 가라앉히지 바깥

☞ 18면으로 계속

그냥 욕심과 착이 이 공부하는 데 제일 무섭게 몰아칩니다

☞ 17면에서 계속

에서는 절대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 참는다." 이러는데 참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을 할 사람한테 맡기고선 고만둬야지, 맡기지도 않고 그냥 일은 안 해 놓고 '그까짓 것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다면 시켜서 일을 한 거하곤 다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짐승들이나 모든 문제들, 그걸 각자 얘기를 하려면 너무 얘깃거리가 많죠. 우리가 음파를 통해서 참, 이렇게 알아서 같이 한마음으로 동일하게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이 한번 그 맛을 본다면 너무나 기쁜 일도 있지마는 슬픈 일도 많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픈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렇고, 물에서 사는 것도 있고 또 저런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데서 사는 저 동물들도 그렇고 역시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식물들도 춥지 않은 게 어딨으며 마음이 어찌 없으며 생명이 어찌 없겠습니까? 고통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생각도 안 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여지가 없어서, 뭐 딴 데 쳐다볼 여지가 없이 살아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생각을 안 해 봐서 모르시는 거뿐이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살림살이의 그 아픔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더불어 같이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길입니다. 부모의 은공을 갚는 것도 바로 내가 주장자의 이 공부를 해야만이 뼈를 빌리고 살을 빌린, 또 시중을 들어 주시고 길러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데 "손도 천이요, 눈도 천이요" 하듯이 어디에 안 닿는 곳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데 조금만 그저 누가 이렇게 말만 해도 바깥으로 돈단 말이야.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남이 운전하는 거, 바깥의 잘못하는 걸 가지고 따지다 보면 자기는 운전을 잘 못해. 그러면 얻다 꼬라박기 똑 참하죠. 이런 형국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안에서 이 운전을 아주 적멸하게 자기나 잘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남 걱정 하다 보니까 문제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잘해 나가고, 잘해 나가면서 또 여기에서 먼저 운전을 능통하게 잘 이렇게 배워 가지고 나갈 때, 남이 잘 못하면 쉴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고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즉 말하자면 착이나 욕심에 끌려다니면서도 자기는 욕심도 아니고 착도 아니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 자기 미쳤다곤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난 욕심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분통이 터져서 이럽니다." 이러지마는 그것은 바로 그 물질에 착이 있기 때문이고 만약에 사랑이라면 질투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진짜 사랑을 하려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을 하려면 여기에 사랑을 하십시오. 여기에 사랑을 하면 물질에, 육신에도 사랑이 옵니다. 모두 열 사람이라도 나한테 사랑이 옵니다. '한군데 사랑을 해야 열 사람이 다 온다' 하는 것은 마음은 하나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만날 때도 둘이 아니고, 공과 공이 둘이 한데 합치면 둘이 아니듯이, 물그릇에 물방울을 하나 떨어뜨리면 그 물이 둘이 아니듯이, 이것은 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데 그 에너지와 같이, 그렇게 빛과 같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착이라는 것이, 욕심과 착이 공부하는 데 제일 무섭게 그냥 몰아칩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옆댕이에서 어떻게 하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다면 절대 끄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사랑해야죠. 울어도 여기에다 대고 울고, 사랑을 해도 여기에 사랑하고, 애원하는 것도, 괴로운 것도 여기에다가 자기의 그 주장자를 끼고 울어 보십시오. 절대 남을 기준하고 울지 마십시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산골엘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못생기긴 했어도 나이가 젊었으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살도 없고 그렇게 될 때니까 상당히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바르고 말리고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두 거지라고 그러고선 돌아다보질 않았죠. 근데 어느 산골로 들어가서 길을 지나다, 삽적거리를 이렇게 지나다가 너무 컴컴해서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어느 집 부엌에라도 좀 웅크리고 앉아서 자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그러지 않다가 왜, 아무 데라도 가서 자곤 그러던 사람이 왜 하필이면 그 집에 꼭 들어가서 자고 싶습니까, 글쎄. 제 주인 놈이 그러니 제가 안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인 놈하는 대로 이놈은 따라간 거죠.

그래서 부엌에서라도 자고 가려고 거길 들어가서 좀 자고 가자고 하니까 아, 거지 미친 년이죠, 그러니까. 하하하….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산골에도 왔느냐고 하면서 뒷덜미를 쳐 가지고서는 그냥 바깥으로 내동댕일 쳤습니다. 돌부리가 있는 데니까 무릎이 그냥 탁 거기 부딪치면서 피가 줄줄 흐르고 이 정강이가 무척 아픕디다. 다른 데는 덜 아파도 이 정강이 모서리 이거는 뭐, 참 그렇게 아픈 게 없습니다. 눈에 불이 번쩍 나면서 말입니다. 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굳이 거길 들어가서 자려고 그렇게 애를 쓰노.'

허허, 이거 보십시오, 글쎄. 이 하늘 밑에 어디 잘 곳이 없어서 하필이면 그 삽적거리 그 집 부엌에 가서 꼭 자고 간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게 인제 의문인 겁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두고도 그 집에 가서 굳이 자려고 했던 문제. 그렇게 내동댕이쳐지는 문제. 또 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무릎이 아파서 그랬으면서도 원망이 안 들어가고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픈 거는 잠시 잠깐 그러면서 눈물이, 울려고 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프니까 잠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 참다운, 즉 말하자면 왜 하필이면 이 만좌중에, 이 여기 하늘 밑에 그렇게 잘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거길 들어가 자자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지. 자기가 들어가 자자고 한 그 잘못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거기 붙은 것은 뭐냐? 하하,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다가, 거기 그냥 주춤거리다 그냥 앉았습니다. 앉아서 '야, 내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옳지! 옳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눈물도 안 나요. '옳지, 알았어. 나를 다지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가서 꼭 자자고 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괭개치게 했구나.' 이 생각이 퍼뜩 들면서 '모든 게, 이렇게 과정을 만든 것이 전부 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그렇게 하고 갔죠.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세면서 있으니까 하늘의 지붕이 그렇게 넓고 좋은 것을, 하필이면 부엌에 들어가서 잡니까, 글쎄, 응? 참 내! 어느 스님네들이 좀 어디 가서 자자고 그럴 때는 나는 그전에는 쪼금 의아했습니다. 어디 잘 곳이 없어서 저렇게 들어가서 자자고 애를 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야 내 생각이겠죠.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사람이 죄 없이 맞은 매는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네가 그렇게, 거기 들어가 자자고 한 것도 너고, 쫓아 들어가서 자려고 했던 것도 너고, 그렇게 내던지게 한 것도 너고, 뚫리게 해서 피가 나게 한 것도 너고, 이것이 나를 다지게, 그 다지고 다지고 모서리 진 습을 떼고 모든 거를 떼 주기 위해서 방망이질, 정질 한 것이 바로 너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눈물을 흘렸다 이겁니다. 그 감사한 눈물을 흘리니까 또 뭐라고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 눈물 한 방울은 피보다도 더 진하고 바다의 그 많은 전체의 물하고도 이 한 방울이 비길 수 없다' 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는 항상 그 마음에,
울더라도 그 안의 주장자를 잡고 울고, 괴로워도 그걸 붙잡고
좋아도 그걸 붙잡고 감사하고, 죽으나 사나 그거 아니면 아니 됩니다.
바깥으로는 절대 착과 욕심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지금 내가 잘했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는 공부자로서, 수행하는 자로서, 몸도 마음도 그렇게 수행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공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신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절대로 분기가 나오지도 않고, 이 마음이 참 꿋꿋하면서도 도도하면서도 항상 내려딛게 되고, 마음이 한 발 내려딛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도도하게 끊임없이 흐르는 그 자체는 정말이지 떳떳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그렇게 내려선다면 아주 포기고, 자기가 인생 사는 것을 포기 조로 들어가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 떳떳하고 뚜렷하고 그렇게 여여하기 때문에 내려서도 내려선 게 없고 올라 디뎌도 디딘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는 항상 그 마음에, 울더라도 그 안의 주장자를 잡고 울고 또 괴로워도 그걸 붙잡고, 또 좋아도 그걸 붙잡고 감사하고, 죽으나 사나 그거 아니면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절대 착과 욕심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놓으면 우리 살림살이는 어떡합니까?" 이러겠죠. 살림살일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우리의 공부하는 과정이며 바로 보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림살이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나요? 사랑을 하되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육신과 더불어 모두가 사랑인 겁니다,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되고. 연줄 연줄이 그냥 가설이 돼서,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환하게 집 안에 불이 들어오니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어떤 방에는 안 들어오고 어떤 방에는 들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부자연합니까? 또 집 안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봅시다. "아이고! 캄캄해, 캄캄해." 하고 "어딨어, 어딨어?" 하고 온통 난리가 나고 할 일을 못하고 이러듯이 우리 살림살이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캄캄한 집 안에서 아마 하루만 불이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나와 보십시오. 물은 지혜라고 하고 그 밝음은, 마음 밝음은 물리라고 합시다. 물리가 터지지 않고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여러분의 각자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게 바로 주인공이자 공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 이게 화두야. 그러니까 모든 살아나가는 거 여기에다 맡겨 놓고 사랑하라 이거야. 내 사랑이 제일이야. 변소에 가서 밑 씻어 주는 것도 내가 있으니까 내가 씻어 줘.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한대도 밑 씻어 주는 부인 보셨고, 밑 씻어 주는 남편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 가까운 사랑을 모르시면 바로 상대의 사랑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벌써 맞닿아서 둘이 아니게 되면 바로 내 사랑인 것입니다.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들어가고 저 벌레의 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그 벌레의 사정을 모른다고 어저께 얘기해 드렸죠. 어떠한 짐승의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다면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는 모른다고요. (중략)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욕심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또 내 안으로만 굴리면서 안에다 모든 그 사랑을, 지금 거죽의 사랑, 거죽의 남편, 거죽의 형제, 자식도 그렇고 거죽의 사랑을 전부 여기에 다 한데 합쳐 놓고선 여기에다가 사랑하십시오. 그런다면 아주 그 몸뚱이도 그 마음도 다 사랑하게 돼요. 마음이 사랑하게 되니까 몸까지 좋아오죠.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7월 21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하늘의 소리



태양의 얼굴일까?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제사장의 지팡이일까?

땅을 울리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들의 염원일까?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양쪽의 둥근 고리를 연결한 긴 막대기 모양의 암각화다. 싸이말루이 따쉬에는 이런 고리 모양의 그림이 많다. 특히 이 그림은 둥근 고리 안에 3개의 알맹이가 들어있는 귀한 그림이다. 내가 본 바로는 유일하다. 윗부분을 특별하게 장식한 것으로 보아 위아래를 구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고리 그림들은 둥근 고리를 양쪽으로 연결했는데, 이 그림은 고리 안에 알맹이를 표현해서 이 암각화만의 고유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자들은 이런 고리모양의 암각화를 해와 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부족의 문양으로도 생각한다. 나는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다. 부족장이나 제사장이 제사의식을 할 때 쓰는 특별한 신물(神物)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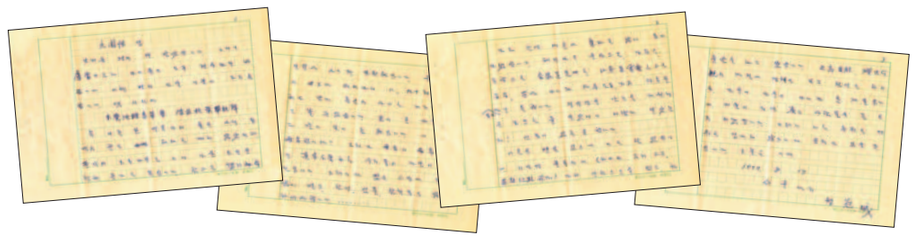
오늘날 스님들이 쓰는 요령도 소리가 울리도록 만들어져 있고, 각종 종교의식에 쓰이는 방울이나 샤먼의 방울 또한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다. 소리는 곧 생명이다. 소리를 통해 생명을 알아채는 것이다. 하늘이나 신들의 영적인 울림을 소리로 전달하여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는 것이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⑮ 지관 스님 1

"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서신〉

보내준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盧 處士님과 아이들도 모두 편안하길 바랍니다. 이젠 벌써 가을기분이 도는 듯합니다. 옛 시구에 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미각지당춘초몽 계전오엽이추성), 즉 이른 봄 연못가의 풀은 아직 동면의 꿈도 제대로 깨지 않았는데 뜰 앞의 오동나무는 이미 가을 소식을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諸行無常(제행무상)일뿐 만 아니라 生 卽 死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팔, 구십을 산다 해도 죽음의 사이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봄이 곧 가을인 것과 같이 生이 곧 死입니다. 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그러나 無常(무상)이 無常(무상)이 아닌 眞常不變(진상불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돈도 많이 벌고 참선, 염불, 참회 등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나는 금년 여름에 意外(의외)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해인사로 전라도 광주로 강원도 설악산으로 등등. 뿐만 아니라 제주도 등 거의 전국을 돌아다닌 듯합니다. 설악산 간 것을 대원성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신통이 있는 듯합니다.

이곳은 별일 없으며 나도 잘 있습니다. 지난번 불국사에 (해인사 주지 도견 스님과 함께) 가서 일타 스님을 뵙고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天高馬肥 燈火可親(천고마비 등화가친)의 계절에 경책을 보고 참선도 하세요. 가을이 가을이 아니라 곧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부산 사람들은 큰소리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추위도 더위도 겁나지 않으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1977. 8. 17. 서울에서 지관.

당시 연꽃모임이 만들어졌을 때, 스님께서는 젊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귀의한 것이 기쁘고 반가운 일이라면서 많은 칭찬과 법문을 주셨다. 그리고 신간 불서들을 때때로 보내주셨다. 또 특별법회를 열고자 스님께 법을 청할 때면 어김없이 응해주시고 챙겨주셨다. 회원 모두 지금도 가끔씩 그때를 생각할 때가 있다.

위의 서신은 여름 끝자락과 가을 초입 사이에서 주셨던 서신인데, 지금도 서신을 꺼내볼 때면 그때 그 여름과 가을이 생각난다. 시절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던 스님도 계절이 주는 무정설법을 무심히 지나치지는 못하셨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 스님이 더 깊은 무정의 설법을 듣겠구나 생각했다. 공부가 적은 우리네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일 것이고, 훨씬 더 많이 들릴 것이라 생각했다. 다시 꺼내 읽은 서신의 한 줄 한 줄에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깊은 계절을 본다. 나도 조금은 깊어졌음이리라. 뜨거운 한여름에 서서 가을 내음이 묻어있는 추억의 서신을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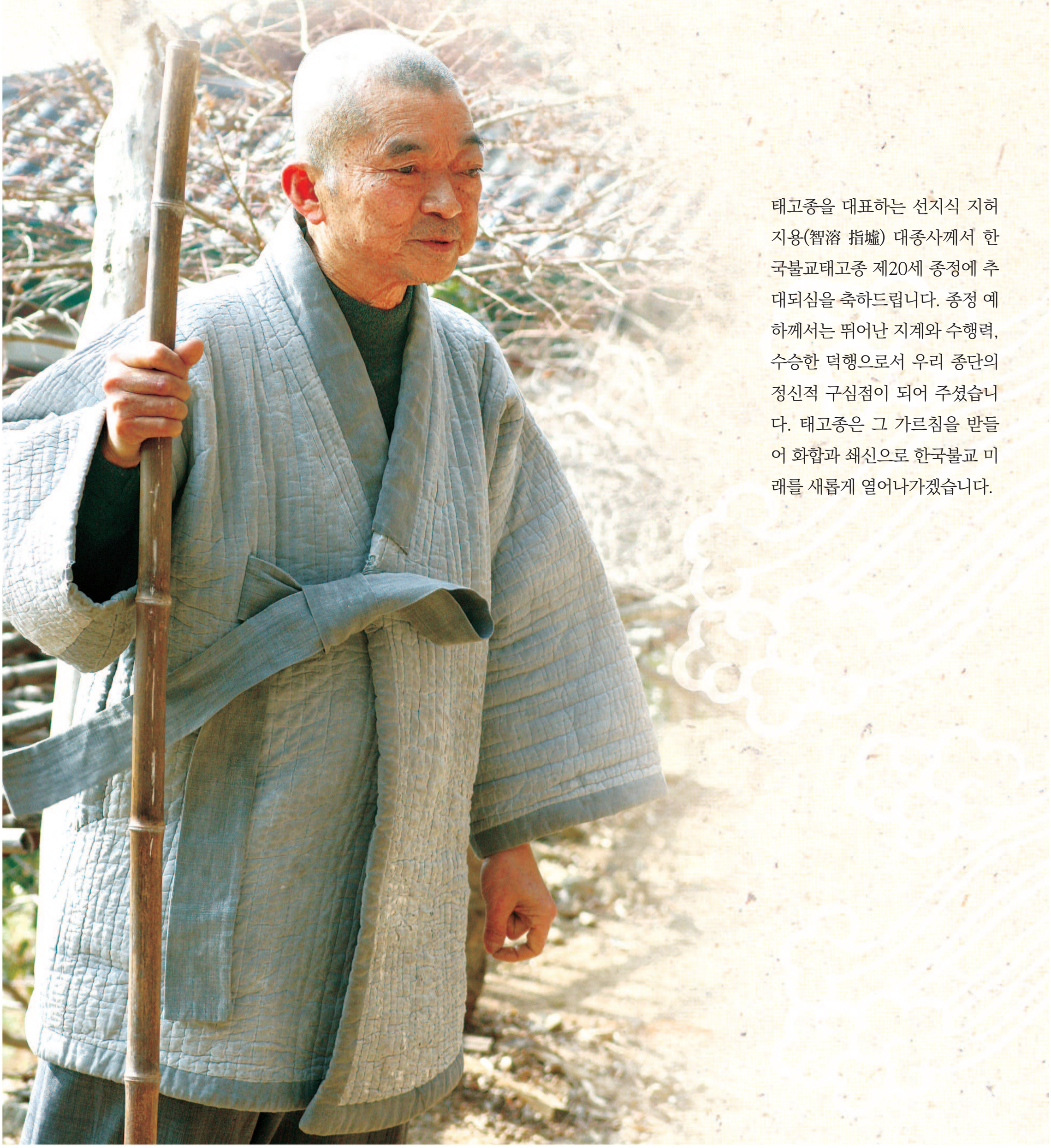
선지식의 서신 속 글 한 줄 한 줄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설법이 들려온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글이지만 '지관' 이라는 선지식의 이름을 거쳐 온 한 줄 한 줄은 또 다른 깊이의 설법으로 들려온다. 이 뜨거운 여름이 설법 속에서 가을이 되어가듯이, 스님이 가셨듯이,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는 모두 무상의 설법 속에 서있다. 분주한 일상을 사는 우리로서는 늘 부처님 말씀으로 깨어있기 힘들다. 가끔씩 오래된 선지식들의 서신을 꺼내 보는 일은 깨어나는 시간이다. 불법으로 깨어나는 소중한 시간이다. 짧은 서신들이지만 내게는 작은 경전들이다.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1985년 경국사에서 지관 스님(왼쪽 세 번째)과 대원성보살(왼쪽 네 번째), 연꽃모임회원들.

智溶 指墟 大宗師

한국불교태고종 제20세 종정
추대 되심을 축하합니다



태고종을 대표하는 선지식 지허 지용(智溶 指墟) 대종사께서 한국불교태고종 제20세 종정에 추대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종정 예하께서는 뛰어난 지계와 수행력, 수승한 덕행으로서 우리 종단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태고종은 그 가르침을 받들어 화합과 쇄신으로 한국불교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가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